

초기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세미나 6

초기 내한 의료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와



| 2024년 09월 20일 | 오후 2시 - 6시
|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지하 1층 더글라스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02길 41

초기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세미나 6

초기 내한 의료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제 1부 예배

사회: 오덕교 목사

인도	오덕교 목사 (햇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개혁주의연구소 소장)
기도	안명준 목사 (한국 성서대 초빙교수)
설교	현창학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대하 20:20-26 감사의 기적
축도	정효제 목사 (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개혁주의 연구소 이사장)

제 2부 논문발표

사 회: 이승규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석좌교수)
격려사: 강덕영 장로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이사장)

2:30 ~ 3:10	강의1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의료 및 장애인 선교와 한국 교회사적 의미" 박응규 교수 (ACTS 명예 교수)
3:10 ~ 3:30		휴식과 교제
3:30 ~ 4:10	강의2	"맥크라렌선교사, 진주배돈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신사참배반대" 민성길 교수 (연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4:15 ~ 4:45	강의3	"미국남장로교회의 의료선교" 이상규 교수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4:45 ~ 5:00		최종 정리 및 인사 오덕교 총장 (햇불 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01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의료 및 장애인 선교와 한국 교회사적 의미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의 의료 및 장애인 선교와 한국 교회사적 의미”

박응규 교수 (ACTS/역사신학)

1. 여는 말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는 1865년 9월 19일 뉴욕주의 리버티에서 태어났고, 신실한 감리교도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 로즈벨트 셔우드(Rosevelt R. Sherwood)는 영국 청교도의 후손으로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자녀교육에도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는 당시 음주절제운동과 노예제반대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어머니 피비 셔우드(Phoebe G. Sherwood)는 비록 친모는 아니었지만 성장 시기의 로제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고, 평생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 조(Josiah Wilson)와도 가족과 같이 지냈으며, 이러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로제타가 어렸을 때부터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은 누구나 다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이러한 배경이 로제타로 하여금 훗날 조선의 여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지극한 섬김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¹⁾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도우며 어린 시절부터 땀 흘리며 일한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평생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었으며, 큰 오빠의 청각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²⁾

리버티 사범학교를 졸업한 로제타는 수년간 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배경에는 남북전쟁의 여파도 있었다. 교육 현장에서 여교사들의 자리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많은 남성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여교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교사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교사들보다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성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문직 여성들이 출현하면서 여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로제타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가운데 조선의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³⁾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을 주축으로 노예해방운동이 일어났으며, 비슷한 시기에 공적 생활에서 여성들의 전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도 일어났다.

1)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파주: 다산초당, 2015), 62-64, 66-72, 84.

2)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89-90.

3)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93-94.

그 이후, 1920년까지 미국의 연방헌법이 열아홉 번째 수정 조항으로 여성참정권을 통과시킬 때까지 미국 여성들은 참정권뿐만 아니라, 음주절제운동, 노예해방운동 등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처럼 로제타의 청소년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개혁 운동 속에서 지났다”라고 할 수 있다.⁴⁾

1885년 봄, 어느 주일 아침 리버티 감리교회를 방문한 인도(India) 선교사였던 케너드 찬들러(Kennard Chandler) 여사의 인도 여성들을 위한 의료선교의 절실한 필요와 여러 생생한 사례들을 들으며 로제타 셔우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교사보다는 의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로제타는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여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 후에 필라델피아 드렉셀 의과대학)에 1886년 입학하여 수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1889년에 3월에 졸업하였다. 1765년, 미국에서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한 고등 교육 기관 역시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이었다. 그 뒤 1850년, 루크레시아 모트(Lucretia Mott)를 중심으로 한 퀘이커들이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설립했다.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여성 의사 양성소였다. 그전에는 백 년 가까이 미국 내 모든 의과대학에서 여성의 입학 허용하지 않았다.⁵⁾ 그런 면에서, 로제타 셔우드는 미국 내에서도 선구적인 여의사들의 한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인 1890년에 로제타 셔우드는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이하 WFMS)에 의해 조선으로 파송되었다. WFMS는 미국의 19세기 중반 이후의 사회 종교적인 분위기와 개신교의 부흥운동과 여성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부흥운동의 결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서부 개척자들에 대한 전도, 성경의 보급, 교육과 사회사업 등을 위해 WFMS를 비롯한 여러 선교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 여러 선교 조직들은 기독교 선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복음을 해외에 전파하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자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복음전도와 개인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사회개혁 활동에도 열정적이었다.

로제타 셔우드는 1890년 8월 21일, 조선으로의 선교 여정을 떠나기 위해 고향 집을 떠나면서 적은 일기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구절을 남겨 놓았다. 그녀는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그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다. 그녀의 일기가 그날의 삶과 관련된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것은 그녀가 일상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진지한 구도자였기 때문이었다.⁶⁾

4)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94-95.

5)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107-108.

6)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15.

로제타 셔우드는 조선에 온 뒤, 정동에 있던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 한양 지구에 거주하였다. 그곳에는 메리 스크랜턴(Mary Scranton)을 비롯한 여성 선교사들의 주거지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 학당,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선에 도착한 직후부터 보구여관에서 일하며 우리나라 여성 근대 교육의 요람인 이화 학당에서 자라나던 1세대 근대 여성들을 양육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특히 조선 최초의 양의(洋醫)이자 여의사로 박에스더(본명 김점동)을 미국에 유학시켜 배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들의 경우 주로 미국 중산층 출신으로 90% 이상 대학 교육, 그것도 대다수가 여대를 졸업한 개신교도로 주로 25-30세의 젊은이들이었다. 또한 출신 배경 역시 독실하고 헌신적인 기독교 가정 출신으로 여성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가까운 가족 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다. 또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가정환경과 더불어 10대에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고 삶을 뒤튼드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종교적 갱생(reborn) 경험을 한 것 역시 선교사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었다.⁷⁾

미국 남북전쟁(Civil War, 1861~1865) 이후 여성의 참정권(suffrage)이 입법화되는 1920년대까지의 시기에 미국의 여성들의 권리 및 역할에 대한 인식과 사회활동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19세기 초중반의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전통적 여성들과 구별하여 고등 교육을 받고 여성참정권 쟁취와 여권 회복,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진보적 사회개혁을 꿈꾸었던 ‘신여성(New Woman)’이 등장하였다. 당시 선교사를 희망했던 많은 여성들 역시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으나, 이러한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미국 중산층 여성들은 단순히 한 남성의 아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참여를 통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였다.⁸⁾

“여성을 위한 여성의 일”(Woman's Work for Woman)은 당시 미국 북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의 모토였으며, 로제타는 1890년 조선에 첫발을 디딘 이래로 1933년 은퇴할 때까지 조선인 못지않게 조선 여성들을 사랑했다. 그녀의 사명은 조선 여성들을 신체적 아픔에서 구하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주체성을 회복해 세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평생 헌신하였다.⁹⁾

로제타 셔우드는 오래전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한 의료선교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으로 파송되기 전 미국감리교가 주관하던 뉴욕의 빈민들을 위한 진료소에서 봉사했으며, 이곳에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캐나다 출신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뉴욕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로제타의 어머니는 자신이 봉사

7)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41-42, 91-99, 104-105; 캐서린 안,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은자의 나라에 처음 파송된 선교사 이야기』, 김성웅 옮김 (서울: 포이에마, 2012), 53-71.

8) 사라 M. 에번스,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230-247.

9)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18.

하던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으로 딸을 데려가 점자를 읽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어머니의 이러한 봉사정신은 로제타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훗날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는 데에 어머니는 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였다.¹⁰⁾

미 북감리교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파견되어 보구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로제타 셔우드는 1891년 12월에는 약혼자인 윌리엄 제임스 홀 역시 미 북감리교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들은 1892년 6월 결혼과 함께 평양 개척선교사로 임명받았다. 윌리엄 홀은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역을 펼쳐나가는 중에 청일전쟁 당시 부상자 치료에 헌신하던 중 과로와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 1894년 11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둘째 딸을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 홀(Rosetta Hall, 로제타 셔우드의 결혼 후 이름)은 그해 12월, 아들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897년 11월 남편이 묻혀 있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1898년 5월 1일 평양으로 다시 돌아온 로제타 홀은 광혜여원(廣惠女院, Women's Dispensary of Extended Grace)을 설립하고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의료사업에 헌신하기 시작하였다.

아들 셔우드 홀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성장했고, 딸 이디스 홀(Edith Hall, 1895-1898)은 아버지의 손길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세 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는 고난이 연속되는 가운데 잠깐 미국 본국에 다녀 오지만, 로제타 홀은 한국에서의 의료선교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행해나갔으며, 한국 근대 의료선교의 역사 중심에 홀가(家)의 선교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윌리엄 홀은 청일전쟁의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의료 선교사였고, 부인 로제타 홀은 장애인, 여성, 아동들을 위해 봉사했던 근대 특수교육과 의료사업의 선구자였으며, 아들 셔우드 홀은 결핵환자 치료에 애쓰며 이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마스실을 처음으로 만든 결핵퇴치운동의 지도자였다.”¹¹⁾

2. 윌리엄 제임스 홀의 평양 의료선교 사역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의 평양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에서 서울(한양)과 평양지역은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한 거점지였다. 서울과 평양과 같은 큰 도시는 공동 선교지역으로 정하고, 서울은 미북장로회, 미북감리회, 미남감리회가, 그리고 평양에서는 미북장로회와 미북감리회가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남의 선교 지역과는 달리 평양지역 선교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양지역의 지정학적 분단 이후 현재 한국교회의 선교역사는 서울, 경기 중심의 이남 지역 연구만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평양지역, 이북 지역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여파로 한국 개신교 성장에

10) Rosetta Hall, “Education of the Blind,”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08): 78; “My Call to the Field,” *The Korea Mission Field* (November 1927): 229.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74 (2011): 91에서 재인용.

11)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88.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평신도 등 다수가 배출된 지역이었다.¹²⁾ 또한 평양 선교는 미북장로교 선교부에서 매우 중추적인 선교지역이었지만, 미북감리교의 평양 지역 선교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서도, 당시 2/3 정도의 선교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교지였다.¹³⁾

평양지역의 선교 과정을 살펴볼 때 대부분 교단별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교단 구분을 넘어 교파적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용되는 과정은 교단별로 시작된 성격이 강하기보다는 서로 연합하는 성격이 강했다. 평양에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고 평양에서의 초기 선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윌리엄 홀의 교단의 벽을 넘어선 화합과 협동의 정신과 자세는 그러한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893년 평양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윌리엄 홀의 희생적인 의료 사역에 대한 호감과 감사의 정이 평양 감사로 하여금 이러한 난국을 진정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훗날 감리교뿐 아니라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의 문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로제타 홀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의료 봉사가 이처럼 커진 것은 평양 감사의 덕택이다. 감사는 닥터 홀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 외국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신사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나? 서울에서도 외국인이 여기에서처럼 병을 고쳐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를 겁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외국인은 국왕으로부터 내지(內地)에 여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으니 누구든지 그를 방해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관청으로 잡혀 올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홀은 3년쯤 지나야 고쳐질 주민들의 선입관이 이렇게 빨리 무마되었다고 생각한다. 장로교의 마펏(Moffett) 목사, 리(Lee) 목사, 스월렌 (Swallen)목사도 지금 평양에 가 있다.¹⁴⁾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리었고, 윌리엄 홀의 사역을 도왔던 김창식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홀 의사와 내가 평양을 처음 방문할 때에는 주막 복도 방에서 거하며 전도를 하였다. 그러다가 1893년에 나는 가족을 전부 데리고 평양으로 내려가 살며 홀 의사와 같이 전도하는 가운데 혹시 그가 순행을 나가서 오래 들어오지 못할 때에는 그의 사무를 전부 내가 대리하여 보게 됨으로 나는 그런 때마다 나의 책임이 중대함을 깨닫고 모든 일을 복음에 가르친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또 평양에 여러 가지 악풍을 개선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을 널리 전파하기로 뜻을 굳게 세웠다. 그리하여 나는 사도바울과 같이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도 펄 많이 맞았다. 천만 가지 시험이 나를 넘어트리려 하였으나 나는 한 번도 넘어뜨림을 받

12) 권태경, “마포삼열의 교육활동의 전개,” 『복음과 선교』 32(2015): 20; 박응규, “서북기독교와 선천: 신성학교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61(2023): 126-127.

13) John Z. Moore, “Pyongyang District,”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26. 6. 23-29.

14) 1893년 3월 28일 로제타 홀의 일기.

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의 도와주심으로 어떻하든지 평양 시민을 전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보겠다고 하고 분투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¹⁵⁾

위의 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기부터 교파별 연합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조사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평양선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착할 수 있었다. 초창기 내한 선교사들의 선교과정을 교단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양지역의 선교는 개척단계부터 미북장로회와 미북감리회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작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⁶⁾ 교단별 선교사역에 대한 기술은 마치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북감리교가 따로 평양선교를 시작했다는 오해를 야기할수 있지만, 마펏은 1890년 아펜젤러(H. G. Appenzeller)와 함께 북한지역으로 선교 순회를 하면서 평양지역의 선교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선교회는 평양이 부산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믿지만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귀하게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조사차 한 사람을 평양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일 게일 씨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제가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아마 우리 가운데 한 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입니다. 저는 8월 29일 금요일에 감리회 선교회의 감리사인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는 매년 북한 지역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밤에 송도에 도착했고, 일요일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60리(하루 반나절) 거리에 있는 송도는 과거에 수도였습니다. 송도는 인구로 보면 두 번째 큰 도시이며, 인삼 산업의 중심지고 비옥한 농장들이 둘러싸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도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펜젤러 목사는 함께 간 본토 전도사와 더불어 5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이는 그들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권서들이 이전에 만났던 자들을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¹⁷⁾

이와 같이 마펏의 보고서에는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북지역 순회를 하면서 함께 선교를 시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북과 평양지역의 초기 개척의 시도 또한 교단별로 각자가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로회, 감리회가 연합하여 구상했던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물론 각자는 미 북장로회, 미 북감리회 소속으로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 소속 선교사로서 각자의 역할과 보고를 해나갔지만 선교 현장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선교 방식은 선교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지역 선교의 시작도 연합의 성격

15) 김창식, “나의 교역 생활,” 『승리의 생활』, 3.

16) 예를 들어 평양 지역의 선교의 기원을 기술한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북한 교회사』를 살펴보자. 평양 지역에 내한 선교사들의 정착이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인 마펏(Samuel A. Moffett), 리(Graham Lee), 스왈런(W. L. Swallen)의 정착을 기술하고 따로 구분하여 미국 북감리회에서 파송된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 Hall)의 의료 선교로 정착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평안도 지역에서 최초로 선교활동을 펼쳤던 교파는 미국 북장로회와 미국 북감리회이다. 이어 안식교·성결교·성공회·구세군 등의 여러 교파가 들어와 선교활동을 펼쳤으나, 평안도의 기독교 지형은 장로교와 감리교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다. 교회조직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평안도 기독교의 모습은 각 선교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지음, 『북한 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60.

17)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I』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7), 159.

이 강했다.

또한 사전 답사뿐만 아니라, 평양 지역을 둘러본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이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선교가 필요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호전시킬 수 있는 의료 선교사의 파송이 적절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파송된 이가 미 북감리회 소속의 윌리엄 홀이었다. 홀은 의료 선교사로서 평양지역에 파송받은 시기는 1892년 8월이다. 이는 초기에 평양지역 선교를 시작한 마펫의 파송 시기보다도 5개월 이른 시기이다. 그 이유는 의료 선교사로서 교단별 선교 개척이 아닌 개신교 선교사의 선교지로서 개척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매하고 평양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윌리엄 홀은 그의 의료 선교에 대한 호의적인 평양 감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응 때문에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다. 홀은 병자와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¹⁸⁾

따라서 이후에 왔던 마펫, 리, 스왈른과 함께 홀이 구매한 주택을 중심으로 선교를 진행해 나갔던 것으로 평양지역 선교는 장로회, 감리회와 연합하여 선교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일기에는 그의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가 평양지역에 했던 의료 봉사로 인해 평양 감사가 이를 묵인하여 호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윌리엄 홀의 의료 선교가 평양 지역 선교에 정착에 내외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당시 평양에 와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장로교의 마펫 목사, 스왈른 목사들에게 집을 살 때까지 자기 집에 있으라고 했다. 그와 노블 목사가 평양을 떠난 후 장로교 선교사들은 도시 외곽의 집을 구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선정부와 외국과 맺은 조약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조선 정부에서 지정한 항구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인 조수의 이름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평양 시민들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됐다. 평양 감사는 닥터 홀이 의료 봉사를 위해 집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또 조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사가 필요했으므로 비공식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여러 서양 선교사들이 밀려오자 감사는 생각을 달리했다. 감사는 마펫 목사에게는 집문서를 집주인에게는 돈을 서로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거기다 두 목사들은 평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무렵 스왈른 목사는 이미 황해도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곳에 없었다.¹⁹⁾

1894년에 벌어진 청일전쟁의 전후에도 선교사들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 특별히 전쟁의 와중에서 한국인 조사들이 지켜낸 평양지역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청·일 전쟁의 혼란이 가라앉은 후 장로회 선교사, 감리회 선교사들의 선교지 복구가 있었다. 선교사들은 청·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피신을 했지만 전후 끝까지 남아서 신앙을 지킨 이들의 돌봄, 파괴된 선교지 복구를 위해 다시 선교지를 재방문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 등에 노출되어 병석

18)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일 자료집 I』, 381.

19) 1893년 4월 29일 로제타 홀의 일기.

이 누워있기도 했다. 마펫은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 선교를 할 수 없었다. 마펫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전투가 끝난 후 15일째 되던 날 리 목사와 홀 의사와 저는 일본 영사로부터 여권을 얻은 후 우리 교인들과 자산을 돌보기 위해 평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첫 4일간은 길에서 전쟁의 흔적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쟁기질을 하는 등 평상시에 하던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시에서 도보로 이들이 걸리는 거리 안에 있는 마을들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산으로 도망가 버려서 황량했으며,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에서 서성이며 돌아가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 그 후 리 목사는 쓸 물건과 더 많은 돈을 가지러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그 직후에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작년 사역과 여름 내내 오랫동안 관찰사와 말라리아와 싸운 것이 제게는 적지 않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에도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으며, 현재 이곳 위생 상태로 인해 다시 한번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홀 의사는 저를 서울로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하며, 특별히 그가 돌봐주어서 1주일 만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사역을 여전히 돌볼 수 있습니다.²⁰⁾

장로회, 감리회 선교부는 전쟁 후에 각자의 선교지를 돌보러 왔지만, 위와 같이 마펫은 말라리아와 전염병에 노출되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윌리엄 홀이 마펫과 선교지의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그 이후, 안타깝게도 서울에 두고 온 임신한 아내, 아들을 보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다가 1894년 11월 24일에 별세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전염병에 걸려 죽은 이로써 희생된 것이 아니라, 평양 지역의 각종 질병에 걸린 수많은 한국인, 중국 군인, 일본 군인 등 그와 함께 한 선교사들을 치료하면서 연합을 위해 서로 헌신하다 희생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평양지역의 의료선교를 통하여 선교사들의 연합정신이 더욱 구현되는데,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순직을 기념했던 기흥병원, 평양 광혜여원 등을 세우면서 이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고, 1923년에 기존의 장감연합병원과 연합하여 평양연합기독교병원으로 통합되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양선교의 기반과 발전은 윌리엄 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다.

3. 로제타 셔우드 홀의 의료 및 장애인 선교와 한국 교회사적 의미

1) 로제타 홀의 의료 및 장애인 사역의 역사적 배경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기 전부터, 한국 사회 역시 유대인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당연시하는 상황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며 동시대인들이 지녔던 그릇된 선입견과 싸우시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촉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기의 선교사들도 그러한 편견을 제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한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역은 선교의 장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선교사역을 가늠하는 “지표”(index) 내지는 “정점”(apex)의 기능도 담당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사와 선교역사 속에서 장애인

20) 옥성득 책임편역, 『마포삼열 자료집 I』, 571, 575.

신학과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교회의 신학과 역사의 성숙정도를 단면적으로 반영하는 바로미터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회사 속에서의 장애인 신학 및 사역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 역사·신학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기독교가 수용되는 시기에 한국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몸의 질병과 부상, 그리고 장애에 대한 치료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해방을 희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전쟁과 정변, 즉 갑신정변, 동학혁명, 그리고 청일 및 러일 전쟁 등의 격심한 비극을 경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근대식 의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단순히 서양의 근대식 의술과 교육을 개화와 근대화의 도구로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공사의 공의 자격으로 내한한 지 얼마 안 되는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이 1884년 12월 갑신정변에서 중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민영익을 서양의술을 통해 치료한 사건은 그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한국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실시되어 오던 어떠한 한방 치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의술이었다. 그 의술의 위력이 이 절박한 순간에 입증되려는 시간이었다.”²¹⁾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 금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조선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선교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민영익의 치료를 담당하고 제중원을 설립한 알렌은 물론이고, 그 후에 내한한 의사였던 헤론(John W. Heron), 감리교 의료선교사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등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내한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였다. 물론 의료나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수행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장로교적 입장과 감리교적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수용케 함으로 선교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²²⁾ 제중원은 초기부터 “개척정신, 기독교적 봉사정신, 그리고 연합정신”의 토대 위에서 의료선교와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의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였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선교의 범주와 목표를 분명히 했던 장로교 선교부와는 달리, 감리교 선교부는 의료 자체에 선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간접적 효과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감리교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은 우선 알렌의 초청을 받아들여, 광혜원(후에는 제중원으로 개칭)에서 짧은 기간 함께 사역했지만, 복음전도 사업에 적극적이지도 본격적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결별하고 정동에서 별도의

21) 민경배, 『알렌의 선교와 근대 한미외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121.

22) 서정민, 『제중원과 초기 한국 기독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27-28.

23)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1. 한국의 현대의학 도입과 세브란스 (1885-1945)』 (서울: 연세의료원, 2005), 6-7.

병원을 개원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병원(施病院)”이다. 이 병원은 주로 가난하고 신분도 낮은 “가장 불쌍한 계층”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제중원이나 시병원은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환자치료를 상하게급을 망라하여 시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과 인도주의적 박애정신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의료선교는 과학적 지식의 한국에의 정착이라는 “근대사의 획기적인 기원을 이룩한 대업”일 뿐만 아니라, “암흑에서 광명”과 “미신적 공포로부터 해방”이 실현되는 산실이 되었다. 또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 혁신적인 계획의 선도자는 로제타 홀 선교사였다. 이렇게 의료선교는 기독교나 그 문명의 세계에 대한 한국의 접촉과 교류의 통로가 개방되었다는 사실과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이나 적대감이 깨져 나가게 한 최초의 강력한 개파동력(開波動力)으로 작용하였다.²⁴⁾

한국에서의 의료선교는 교회를 태동하는 모태의 역할도 하였다. 단순히 병원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교육도 병행하면서, 특히 제중원은 “병원, 학교, 교회라는 초기 한국 선교의 트라이앵글 선교 연대의 한 원형이 된 의미를 지닌다.”²⁵⁾ 제중원의 병원선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태동한 교회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한 계급의식을 타파하고 인권회복 운동에 적극적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사무엘 무어(Samuel F. Moore) 선교사와 곤당골 교회(후에는 승동교회로 발전)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제중원의 에비슨(Oliver R. Avison) 의사와 무어 목사 그리고 그의 한국어 선생이 전도함으로 1893년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였다. 곤당골 교회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을 전도하는데 앞장섰으며, 그 후인 일제 치하에서도 교회 안에 “맹인회”를 창립하여 맹인전도사업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²⁶⁾

이렇게 의료 및 병원선교의 특성은 한국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장애인 선교의 장을 여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에서의 장애인 선교는 병원선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로제타 홀이나 사무엘 무어(Samuel Forman Moore) 선교사와 같은 이들의 사회개혁적 차원의 선교신학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²⁷⁾

24) 민경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100-01.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이 백내장 수술을 통해 환자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해 주자, 이것을 본 조선인 조수는 “의사가 장님에게 눈을 주었다. 모든 직업 중에서 제일가는 것은 의술”이라고 외쳤다. 이러한 예를 통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서양의술이나 의료선교사를 인식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 회상』 (서울: 좋은 씨앗, 2003), 78.

25) 서정민, 『제중원과 초기 한국 기독교』, 55, 63.

26) 서정민, 『제중원과 초기 한국 기독교』, 94-104; 홍치모, 『승동교회 100년사, 1893-1993』 (서울: 승동교회, 1996), 48. 무어 선교사의 사회개혁적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정준모, “Samuel F. Moore 목사의 한말 선교활동과 사회개혁에 관한 연구” (총신신대원, Th. M. 논문, 1987). 승동교회의 맹인전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홍치모, 『승동교회 100년사, 1893-1993』, 215-23, 247.

27) 홍치모, 『승동교회 100년사, 1893-1993』, 281-82.

2) 로제타 홀의 기흥병원과 의료 선교사역

한국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전래와 수용에 있어서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특별히 한국 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선교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기까지, 미 북장로교 선교사, 마포삼열과 함께 미 북감리교 의료선교사였던 윌리엄 홀의 희생적인 삶과 사역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²⁸⁾ 평양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의 마음을 복음에 활짝 열기까지 평양선교의 개척자 중의 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홀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홀은 조선에 1891년 12월에 처음 와서 1892년 평양지방 개척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환락의 도시로 알려졌던 평양을 선교의 대상지로 삼았던 그에게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던 동료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그의 “밀알”과도 같은 선교정신이 복음의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²⁹⁾

홀은 평양에서 활동하자마자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청일전쟁 때에는 외교관계로 청나라와 일본이 침입하지 못하는 홀의 집을 조선인들에게 개방하여 피난처가 되어주어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전쟁 중 전염병이 유행하자 환자들을 돌보다 홀도 전염병에 걸려 1894년에 소천(召天)하였다. 그가 평양에서 사역한 기간은 너무도 짧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의 흔적은 한국교회의 선교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홀은 한국에 스크랜턴의 후임으로 의료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뉴욕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었다. 그가 조선으로 가기 위해, 그 사역을 그만두었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자들이 어린이들과 바로 그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사역했던 홀이었기에, 외계인처럼 낯설고 구경거리였던 외국인 선교사에게 조선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또한 시각장애자로서 시인이며 찬송가 작사가인 패니 크로스비(Fanny Crosby)도 홀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에게 시를 지어주기도 했다.³⁰⁾ 뉴욕시각장애 학교 졸업생이자 교사였던 패니 크로스비는 윌리엄 홀과 친분이 두터웠기에 그가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그를 위해 “누가 갈꼬?”(Who Will God?)라는 찬송을 작시(作詩)해 주기도 했으며, 나중에 홀 부부는 그녀에게 한국어로 번역된 크로스비의

28) 마포삼열의 선교적 사역에 대해서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박응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역사신학논총』 13 (2007): 80-112; 이종형, “마포삼열의 생애와 사역,” 『장신논단』 6 (1990): 58-79; 서정운, “마포삼열이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 『장신논단』 6 (1990): 32-57. 그리고 윌리엄 홀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 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을 참고하라.

29)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 회상』, 113, 133, 252, 255. 이러한 자세로 살며 사역했던 홀을 “착한 성인 하락,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하였다. 홀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도 “학생자원운동”에의 참여와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가 설립한 마운트 허몬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였다.

30)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55, 60. Cf. Edith L. Blumhofer, *Her Heart Can See: The Life and Hymns of Fanny J. Crosby* (Grand Rapids: Eerdmans, 2005).

첫 찬송인 “인애하신 구세주여”(Pass Me Not)의 사본을 보내기도 했다. 1897년 남편을 여의고 미국에 돌아온 로제타 홀은 다시 크로스비를 만나게 되었는데, 크로스비의 삶과 사역은 로제타 홀의 시각장애인 사역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주었다.³¹⁾

남편의 별세 후, 로제타 홀은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한 구절을 일기 속에 자주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조선에 보내시고, 그의 생애가 이 땅에서 이미 끝났지만, 그리고 딸마저 먼저 보내는 슬픔을 당하면서도, 결코 조선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 로제타 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숙제 중의 하나는 “조선의 맹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맹인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모금운동을 펼쳤고 뉴욕 시각장애인 학원의 원장인 윌리엄 웨이트(William Wayte)가 개발한 “뉴욕 점자법”(New York Point System)을 배웠다.³²⁾

또한 조선인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로제타 홀은 김점동(박에스더)과 남편 박유산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켰다. 박에스더는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후에는 존스 홉킨스의과대학원/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으로 발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1900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이자 의학박사가 되었으며, 후에는 고국에 돌아와 의료봉사에 심혈을 기울였다.³³⁾ 로제타 홀은 1897년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미국에서 모은 모금액으로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흥병원(紀忽病院, The Hall Memorial Hospital)을 세웠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설립된 현대식 병원이었다. 그리고 1898년에는 광혜여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의술을 베풀면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푸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3) 로제타 홀의 시각장애인 교육과 선교

한국에서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인 교육, 특히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통한 선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다.³⁴⁾ 로제타 홀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당시 한국의 시각장애여성들은 봉건적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으로서 이중고(二重苦)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 평양에서의 본격적인 시각장애인 교육은 1894년 봄, 로제타 홀이 오봉래라는 시각장애 소녀를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오봉래는 윌리엄 홀의 한국인 첫 신자였던 오석형의 딸이었으며, 이 만남을 통해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확신하였다.³⁵⁾

31) Rosetta Hall, “Education of the Blind,” 79.

32)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184-185.

33) http://kcm.co.kr/person/person_k059.html

34) 장애인 선교가 갖는 구속사적이고 역사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박응규, “역사신학적 접근에서 본 장애인: 한국교회사적 고찰.” 이재서 외, 『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 서울: 도서출판 세계밀알, 2009, 173-218.

오봉래를 교육하자 소문을 듣고 많은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들이 로제타 홀을 찾아왔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근대 특수교육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³⁵⁾

당시 서양 선교사들과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는 때라,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교육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기독교인인 오석형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딸인 오봉래에게 1894년부터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만든 점자를 고안하여 사용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오봉래에게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자,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³⁷⁾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남편 윌리엄 홀이 청일전쟁의 와중에 과로와 전염병 감염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게 되었다. 슬픔 속에서 선교지 한국을 잠시 떠났지만, 로제타 홀의 마음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 윌리엄 홀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울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였다.³⁸⁾ 1897년 로제타 홀은 50여년 전에 어머니가 입대였던 자신을 데리고 방문하곤 했던 뉴욕 시각장애인학교(New York Institution for the Blind)를 다시 방문하여 이 학교에서 사용하던 뉴욕포인트라는 점자 체계가 조선어에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³⁹⁾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비전을 품고 로제타 홀은 1897년 11월 10일 아들 셔우드와 딸 이디스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해 이듬해 평양에서의 의료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하지만 1898년 남편을 잃은 평양에서 다시 딸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은 로제타 홀은 크게 상심했지만, 결코 조선인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잃지 않고 다시 의료선교에 몰두하였다. 로제타 홀은 딸을 기리기 위해 최초의 아동전문병원을 개원했고, 이 병원에서 시각장애인 소녀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각을 잃은’ 조선의 앞 못 보는 소녀들이 ‘딸을 잃은’ 로제타 홀의 가족이 된 것이다.” 시각장애소녀들을 위해 로제타 홀은 매년 그녀의 사랑하는 딸 이디스의 기일(忌日)이 되면 작은 기념품을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친딸처럼 사랑하고 돌보았다. “이디스 포래의 이 조선 소녀들은 로제타 홀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딸이었다. 딸을 잃은 마음으로 그녀는 시각을 잃은 소녀들을 사랑했다.”⁴⁰⁾

로제타 홀은 첫 학생이었던 오봉래에게 다시 점자교육을 시켜 한글 모음자음을 배우고 빠르게 한글을 읽을 수 되었으며 준비한 교재를 모두 읽을 수 있었을 뿐만

35) Rosetta Hall, “Education of the Blind,” 79.

36)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158-159.

37)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159.

38)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184.

39) Rosetta Hall, “Education of the Blind,” 79;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184-185.

40)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94.

아니라, 점자로 글을 쓸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로제타 홀은 점자교육과 함께 생활교육까지도 실시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본 많은 시각장애인 소녀들의 부모들이 로제타 홀을 찾아와 그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베풀어달라고 부탁하게 이르렀고, “마침내 조선의 첫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산수와 지리 등의 일반교육과 직업훈련도 받았다. 또한 신앙교육도 병행했으며, 특히 찬송가를 번역해서 가르쳤다.⁴¹⁾

특히 로제타 홀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역경을 이기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패니 크로스비의 찬송을 그들에게 즐겨 가르쳐 주었다. 로제타 홀이 들려준 크로스비 여사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소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어린 나이에 의료사고로 시각을 잃는 역경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겨낸 이야기는 조선의 시각장애 소녀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⁴²⁾ “로제타 홀의 시각장애소녀교육의 목적은 소박했지만 분명했다.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녀(巫女)나 점쟁이가 아닌, 지적이고, 평범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목적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slowly but surely)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다.”⁴³⁾

이렇게 해서, 로제타 홀은 미국에서 배운 점자를 평양식 점자로 옮겨 놓았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점자를 통한 시각장애인 교육이 가능해졌으며, 점자를 배움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교육의 효과가 늘어날수록 로제타 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마침내 평양여학교에 통합교육을 위한 시각장애인반이 만들어졌다. 로제타 홀의 교육을 받은 오봉래는 스스로 특수교사가 되어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시각장애인교육은 청각장애인교육으로 확대되어갔다.

로제타 홀은 1894년 조선 최초의 맹아학교를 시작하였고, 1903년에는 평양의 정진학교 안에 여자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웠으며, 1909년에는 농아부를 설치하여 맹아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로제타 홀은 여러 병원의 병원장이면서도 1925년까지 무려 26년간이나 맹아학교와 농아학교 교장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장애인들을 홀대하였으며, 그야말로 암흑 속에 던져진 신세였다.

이때는 돈에 여유가 있는 집안의 맹아들만이 안마사나 무당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가난한 집 맹아들은 돼지 막 같은 더러운 방에 갇혀 학대받고 살다가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시대였다. 심지어 경기도의 어떤 할머니는 손녀에게 독약을 보내어 죽이려 하다가 홀 여사와 함께 한 선교사들의 경고에 눈물로 참회한 일도 있었다. 홀 여사는 이러한 불행한 사회 환경을 장애인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

41)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203;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95.

42) Rosetta Hall, “The Clocke Class for Blind Girls,” *The Korea Mission Field* (July 1906): 175.

43) Rosetta Hall, “The Clocke for Blind Girls,” 175-176; “Education of the Blind,” 80;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96.

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다. 점자로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맹학교 조수, 점자 제작이나 인쇄술, 뜨개질, 사진관 보조, 김치 담그는 법, 재봉법, 수선법, 요리, 세탁, 편물, 다리미, 바구니 제조, 돛자리와 집신 삼는 법과 같은 다양한 훈련과 취업을 실제로 넓혀 나갔다.⁴⁴⁾

로제타 홀 여사의 헌신적인 사역의 결과로 적지 않은 장애인들을 전도하고 교육시켜 맹인교사나 전도자로 키워 동역자로 세웠다. 특히 점자를 배운 맹인 여성들은 지방에 다니며 맹인 여성에게 전도를 주체적으로 감당하게 하였다. 한편 미 북장로교 선교부도 1904년에는 선교사 마포삼열의 부인에 의해 평양에 별도로 남자 시각장애인학교가 세워졌으며, 선교초기부터 맹인과 농아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사역에 노력했던 로제타 홀은 평양맹아학교 교장으로서 “제 1회 동양맹학교 회의”를 1914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여, 여러 나라의 장애인 선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장애인 선교와 교육에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나중에는 일제에 의하여 여러 장애인학교들이 통합되어 “평양맹아학원”으로 개명하여 이창호 목사가 운영했으며, 교사로는 박윤삼 등이 있었다. 또한 이 학교에서 농아를 위한 주일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림으로 한국 농아교회의 효시가 되었다.⁴⁵⁾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선교와 특수교육을 동시에 시작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전통과 함께 초기부터 장애인 선교가 주요한 선교사역의 일환이었다.⁴⁶⁾

이뿐만 아니라,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육화사(六花社)를 운영하였고, 이어서 조선맹인사업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한국 점자를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192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한글점자를 새로 완성하여 성경의 점자 간행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26년에는 점자 요한복음을 발간하였으며, 이것은 “한국 점자 성서의 효시”가 되었다. 그 후로도 신약성경의 각 권을 점자화하고 해방 이후에는 점자 구약성경, 그리고 1958년에는 점자 찬송가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⁴⁷⁾

이렇게 초기부터 기독교는 맹아사업을 통해서, 사회의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돌파구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의 특수교육 분야도 대부분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교인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전통이 초기부터 세워졌다. 그런 면에서 “한국기독교 사회사업이 그 교육적 기능을 최대로 발휘한 분야가 맹인과 농아에 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선교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그 운동력을 파급시키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였다.⁴⁸⁾ 장애인 사역은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예수님의 장

44) 김홍권, “한국 초기 기독교와 장애인 선교: 맹·농아교육의 선구자, 닥터 로제타 홀,” 세계밀알연합회 2007 장애인선교세미나 발표논문, 27. 로제타 홀의 “맹인들을 위한 사업(평양)”에 대해서는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09/June 1910/August 1914/August 1915)에 자세한 보고내용이 실려 있다.

45) 김홍권, “한국 초기 기독교와 장애인 선교: 맹·농아교육의 선구자, 닥터 로제타 홀,” 26-38;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부, 1987), 280.

46)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92.

47)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281.

애인에 대한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며 메시아의 고유한 사역으로 드러내었다. 장애인들을 포함한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알려졌다.⁴⁹⁾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선교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역을 전개했듯이,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펼쳐졌다.

특히 “평양의 어머니,” “맹인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로제타 셔우드 홀에 의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개척자적인 선교사역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인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선교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선명하게 했으며, 선교의 통로를 활짝 연 교두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⁵⁰⁾ 로제타 홀의 삶과 사역은 평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전개되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모두 평양에서 잃었다. 그러한 평양을 로제타 홀은 떠나지 않았고, 평양은 그녀의 고향이 되었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 특히 소외된 여성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지고한 사랑과 희생은 평양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해 가는 데에 남편과 더불어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결핵을 전공한 의사였던 아들, 셔우드 홀도 그의 부모를 이어 조선에 와서 의료봉사를 하였다. 해주에 결핵전문병원인 구세요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을 발행하여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결핵퇴치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1931~1940년에 발행된 크리스마스 씰에는 트리, 산타와 같은 외국적인 이미지가 없고 송례문과 같은 조선의 문화재와 세시풍속과 연관된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결핵에 대해 무지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사역했고, 그 후 인도에 가서 또 다시 의료봉사를 펼쳤다. 윌리엄 홀을 비롯한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 아들 셔우드 홀, 그리고 딸까지 가족 모두가 양화진에 안장 될 만큼 한국을 뜨겁게 사랑하고 생애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기흥병원은 일제 치하에서도 꾸준히 발전하여 1931년에는 3만 7천 달러를 들여 18개의 병실과 65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X선과 등이었는데, 초기처럼 장애인에 대한 진료나 교육이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기흥병원은 지방의 다른 기독교 병원과 달리 기독교 교단 세 곳이 함께 운영하는 연합병원이었다. 이러한 연합병원은 전국적으로 세브란스병원과 기흥병원 뿐이었다. 이렇게 기흥병원은 당시 22개의 기독교 병원 중에서 세브란스 다음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큰 병원으로 성장하였다.⁵¹⁾ 또한 기흥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진은 신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장기려 박사를 배척하던 자들이 1940년 원장이었던 그를 신사참배를 하

48)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280.

49) 안교성,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14.

50)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704.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1894년 평양 정진학교에서 1894년 맹아교육과 1909년 농아교육을 시작한 이래 1935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의 맹·농아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홀을 “맹인의 어머니”이자 “평양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51)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서울: 흥성사, 2007), 133-34.

려한다는 혐의를 무고하게 씌워 원장직 박탈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193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²⁾ 기흥병원은 6. 25 동란 중에 평양이 국군에 의해 점령된 후에는 국군의 야전병원으로 활용되어 부상병들을 치료하기도 하였다.⁵³⁾

“한국 근대 의료선교의 역사 중심에는 홀 가족이 서 있다. 윌리엄 홀은 청일 전쟁의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의료선교사였고, 부인 로제타 홀은 장애인, 여성, 아동들을 위해 봉사했던 근대 특수교육과 의료사업의 선구자였으며, 아들 셔우드 홀은 결핵환자 치료에 애쓰며 이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마스일을 처음으로 만든 결핵퇴치운동의 지도자였다.”⁵⁴⁾ 그 중에서도 로제타 홀의 선교사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로제타 홀은 한국 근대 의료선교와 특수교육의 선구자이다. 평양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설립했고, 최초의 아동병원을 설립했으며, 최초의 한국여의사 박에스터를 교육시켰고,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를 설립했다. 특히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설립했고, 최초의 점자를 도입했고, 최초로 한글용 점자를 개발했으며,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을 시도했다.... 또한 구한말 주권침탈을 위한 열강들의 전쟁터였던 평양에서의 홀 부부의 헌신적인 의료선교는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윌리엄 홀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인도주의적인 의료활동을 죽기까지 수행했으며, 로제타 홀은 가장 소외된 시각장애소녀들을 자신의 딸처럼 돌봤다. 로제타 홀은,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은 아픔의 땅 평양에서, 소외받는 여성, 아동, 장애인들을 그녀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그녀의 선교활동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수 있는 든든한 모퉁잇돌이 되었다.⁵⁵⁾

4. 달는 말

로제타 홀은 여성병원과 의료선교를 통한 한국 여성들을 위한 선교거점 확보하여 그 이후의 선교 발전이나 각 분야의 우수한 근대 여성 지도자들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공로를 남겼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의료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병원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진보된 사고이며, 가장 무시 받고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이 기독교의 이상에 더 부합된다는 로제타 홀의 이상과 그에 따른 헌신과 희생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한국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영향과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⁵⁶⁾ 특히 당시 남존여비사상 혹은 내외법 관습으로 서양의학의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여성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서양의학, 그리고 서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선교의 거점이자 보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52)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144.

53) 지강유철, 『장기려, 그 사람』, 218.

54)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88.

55)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100-101.

56) Rosetta Sherwood Hall, “Women Physicians in the Orient,” *The Korea Mission Field* (February 1925); 김성은, “구한말 일제시기 미북감리회의 여성의료기관,” 131에서 재인용.

또한 로제타 홀은 다양한 여성의료기관을 통해 한국 여성들에게 전도부인, 간호사, 그리고 의사 등과 같은 직업여성의 모델과 근대적 의학을 통한 근대지식에 대한 탐구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개화와 근대의식 함양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제타 홀이야말로 조선 최초의 서양의학 여성병원인 보구여관, 서울 동대문에 세워진 볼드윈진료소, 그리고 평양에 지방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병원인 광혜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무엇보다도 여의사로서 진료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한국인 최초의 양의사 박에스더를 비롯한 많은 초기 의료인을 배출하고, 많은 의료기관을 세우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녀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동대문에 세운 볼드윈진료소는 오늘 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했고, 남편 윌리엄 홀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홀병원은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확장되었으며, 평양에 광혜여원과 인천에 부인병원을 세웠으며, 또한 여성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세운 경성여자의학강습소는 오늘날의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자리잡았다.

일찍이 사범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로제타 홀은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평양 여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운 광혜여원 옆에 우리나라 최초의 맹아학교를 설립하였고, 직접 점자책을 만들어 맹인 소녀들을 교육했다. 맹아학교가 자리를 잡은 후에는 농아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기반을 닦았다. 한국특수교육학계에서도 로제타 홀이 한국 최초의 근대 특수교육을 시작한 선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⁵⁷⁾ 전술한 바와 같이, 1894년부터 로제타 홀은 점자사용법을 개발하여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교육을 시작했고, 1909년에는 청각장애인교육으로도 확대하였다. 그런 면에서, “로제타 홀이 운영하던 시각장애인교육기관은 한국 근대 특수교육의 요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⁸⁾

평양에서 오랜 세월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랑을 실천한 로제타 홀은 “평양의 오마니”라고도 불리었다. 조선 여성을 해방시켰다 하여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과 비유되기도 했다.⁵⁹⁾ 더 나아가,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인물이다. 한국 기독교회사 및 선교사(史)와 여성사, 교육사, 그리고 의학사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한 인물이 한 시대와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실례는 찾아보기 아주 힘든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57) 김병하,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女史에 의한 韓國特殊教育의 成立史考,” 『특수교육학회지』 (1986): 5-27; 임안수,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기원연대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05, 9): 293-309;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91에서 재인용.

58) Rosetta Hall, “Retired but Still Alive,” *The Korea Mission Field* (October 1941): 120;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91.

59) 박정희, 『닥터 로제타 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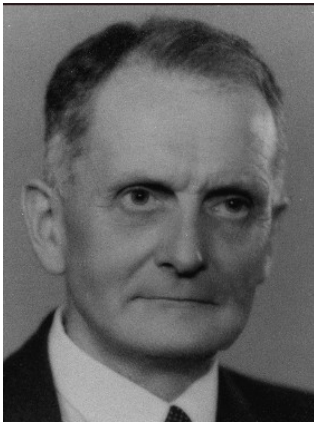
02

맥크라렌선교사, 진주배돈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신사참배반대

맥라렌선교사, 진주배돈병원, 세브란스 그리고 신사참배반대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

맥라렌(Charles Inglis McLaren, 한국명 馬羅連) 교수(1882-1957)는 호주장로교 의료선교사이면서 정신과의사이다. 그는 1911년 같은 선교사인 부인과 같이 한국에 와서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추방될 때까지 32년간 진주배돈병원, 세브란스 정신과교수로서 사역하였으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과 연금생활을 한후 추방되었다.



1. 맥라렌선교사

성장

맥라렌은, 1882년 8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 의 2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Samuel G. McLaren(1840-1914)은 the University of Edinburgh을 졸업하고 독일 Leipzig와 Heidelberg의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and postgraduate work를 거쳐 목사가 되었다. 그는 결혼한 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선교사로 일본으로 파송되었다. 그는 동경 명치학원의 '장로교연합신학교'(Presbyterian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역사 및 biblical literature 교수로 사역하였다. (이때 찰스 맥라렌 선교사가 출생하였다) 8년간의 사역 후 그의 아버지는 건강문제로 영국으로 귀국했다가 1886년 호주로 이주하였다. 그는 장로교회 목사로 그리고 1889년부터 Presbyterian Ladies College의 교장으로 일하면서 1911년 은퇴할 때까지 명문학교로 발전시켰다.

어린 맥라렌은 기독교적 가정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9살 때 부흥회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로, 그리고 선교사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Scotch Collegedp 다닐 때, 학생대표로 1896년 6월 6일 오르몬드 대학(Ormond College) 위셀라스키 홀(Wyselaskie Hall)에서 개최된 호주 기독교학생연합(Australasian Student Christian Union, ASCU)의 부흥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John R. Mott(1865-1955)⁶⁰의 설교가 있었다.

60) 당시 존 모트는 세계 그리스도교학생연맹(WSCF)의 총무로서, “이 세대에서의 복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영어권 나라들을 순방하고 있었다. 그는 방문국마다 학생선교단체를 조직하도록

그는 존 모트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예과과정인 Ormond College를 거쳐, 멜본 의대에 진학했다. 의대 공부 중에서도 그는 학생기독교운동(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였다. 그는 일찍이 의과대학생이던 1903년 21세 때, 의료선교사 되기로 “학생자원선언”에 서명하였다. 그 선언은 다음과 같다:

“It is my purpose, if God permit,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

1906년 24세 때 멜본의대를 졸업하고, 1907년 Royal Melbourne Hospital에서 2년간 신경의학자인 Sir Richard Stawell 교수의 지도하에서 신경정신의학 수련을 받았으며, 다음해 멜본 Children's Hospital에서의 연수를 계속하여, 1910년 Doctor of Medicine을 획득하였다(1).

의사로서의 수련기간 동안에도 매년 학생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1909년 호주 학생기독교운동(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전문의 수련을 마친 후 1910년 일년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SCM의 순회간사로 봉사하였다. 그는 같은 순회간사로 동역하던 여성 Jessie Reeve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같이 선교사로 일하기로 약속하면서 1911년 8월 22일 결혼하였다. 그리고 결혼 3주일 후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때는 데이비스 선교사가 순교한지 20년이 지난 후였다. 그때까지 호주선교부⁶¹⁾의 선

격려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 학생운동의 특징은 기도, 체계적 성경공부, 개인사역, 그리고 해외선교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행중에, 존 모트는 1896년 호주를 방문하여, 일련의 강연을 하였다. 이 부흥회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34개 대학에서 학생 대표 256명이 참석하였다. 이 부흥회를 계기로 ‘오스트랄라시안 기독교학생 연합’(ASCU)이 조직되었다. 이 학생선교기구는 후일 1921년 ‘기독교학생운동’(Student Christian Movement, SCM)으로 개칭된다.

존 모트는 YMCA 운동, 세계 기독교 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교회 일치운동(에큐메니즘: ecumenism) 등의 세계적인 지도자이다. 그의 잘 알려진 한 저서의 한 제목이 20세기 초 전 세계에서 선교구호가 되었다. 그것은 “이 세대에서의 세계복음화!”(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이었다. 그는 선교와 에큐메니즘에 대한 봉사자로, 국제 개신교 크리스찬 학생조직의 설립자로, “그의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널리 여행하고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크리스찬”으로 칭송되었으며, 세계 평화를 증진시켰다는 업적으로 194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61) 호주선교부(빅토리아 장로교회 해외선교위원회의 후신)는 영국의 개신교 특히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세계복음화와 문명화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고, 또한 호주의 당시 경제력을 바탕으로, 1860년경부터 호주 원주민, 중국 등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였다.

한국선교는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의해 시작되었다. 데이비스 목사는 1889년 10월 호주의 첫 선교사로,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Miss Mary T. Davies)와 함께 한국에 왔다. 그는 아직 선교사가 없는 지방으로 가서 일하기로 작정하고, 선교지를 물색하는 의미에서 1890년 3월 14일 누이를 남겨두고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그는 경상도 지방까지 300마일에 이르는 약 20일간의 답사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리한 도보 여행으로 인해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폐렴까지 겹쳐, 마지막 5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인 4월 5일, 오후 1시경 당시 부산에 체류했던 캐나다 선교사 게일(J. S. Gale) 목사의 집에서 3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 그는 한국에 온지 겨우 6개월 만에 순교하였다. 선교사 게일은 데이비스의 시신을 부산 영선동 뒷산에 매장하였다. 누이는 바로 호주로 귀국하였다.

그의 죽음은 호주 장로교회의 다른 이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자각에, 데이비스를 지원했던 빅토리아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FMC)는 “한국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마지막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 호주가 기독교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시아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한국 선교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다(정병준 해방이전의 호주선교사들의 활동과 선교정책, 한호선교 12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 시드니, 2009년 10월 3일). 그들의 주요 선교정책은 “가난

서교사들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비할 바 없는 기독교 성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과거 역사를 뒤돌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동료 선교사 뉴(E.W. New)는 이후 맥라렌 전기에서 기술하고 있는바, 그 예로서 맥라렌과 호주의 한국선교를 들었다. 맥라렌 부부는 호주 SCM의 아시아태평양 선교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II. 배돈병원

진주

당시 진주는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서부경남의 중심지이며,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부산지방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운영하는 병원과 일본인 의사가 관장하는 관립병원이 있었으나, 진주에는 이러한 근대 의학의 혜택이 없었다.

1905년이 되어서야 호주의 의료선교사 커를(Hugh Currell, 1871-1943, 거열 또는 거열휴)이 진주로 와서 의료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2년 내한한 커를은 1897년 아일랜드의 로열대학에서 M.D.학위를 받은 의사이자 목사이기도 했으며, 호주에서 온 최초의 의료선교사였고, 진주지방에서 전도한 첫 외국인 선교사였다. 커를과 부인 Mrs. Ethel Currell은 부산에서 시약소를 운영하다가, 1905년 10월 20일 그들의 두 딸과 한국인 조사인 박성애부부와 더불어 진주로 이주하였다. 진주의 한 초가집 방 한칸으로 시약소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이 지방에서의 의료활동과 진주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는 11년간 진주지방에서 교회, 병원, 학교를 설립하고 봉사하였다.

커를의 의료활동으로 진주 지방에서 신임을 얻게 되자 전도의 결실이 나타나, 1905년 선교 첫째 진주교회(옥봉교회라고도 불렸음)가 설립되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으로 1909년 라이얼(D. M. Lyall, 나대벽) 선교사가 백정 신자들을 차별하여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평등인권사상에 어긋난다고 하여 함께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이 형평운동(衡平運動)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커를의 조수 박성애는 후일 전도사로, 장로로 봉사하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진주지방 첫 한국인 목사가 되어 진주교회의 첫 한국인 담임목사가 되었다. 이후 이 교회에는 이익신 목사, 윤인구 목사(부산대 및 연세대 총장 역임) 등이 시무하였다.

커를은 1913년부터 맥라렌과 같이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서 일년에 일정기간동안 서울로 출강하였다. 그는 또한 진주 성경학원에서 강의하였다. 1915년 9월 22일 커를은 사임하고 호주로 돌아갔으며, 1943년 소천하였다.

커를 선교사의 부인도 진주 여성 교육을 개척한 여성 지도자였다. 1906년 진주에 사립 정숙여학교를 설립하여 시원여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 주었다. 그녀는 부인은 1969년 소천하였다.

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디커니스 훈련(deaconess training)을 통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선교”, 기독교생운동(ASCU)과 학생자원운동(SVM) 통한 선교사 배출 등이다. 맥라렌 부부도 SVM 출신이다. 호주 해외선교부 총무이며 SVM의장이었던 패튼(Frank Paton)은 선교자금을 동원하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진정책(Forward Policy)을 수행했는데, 경남지역 선교, 진주 배돈병원 설립, 간호사 파견, 학교 설립, 세브란스에 교수요원 파견, 매춘여성 구제사역, 등을 추진하였다. 맥라렌은 이런 정책하에서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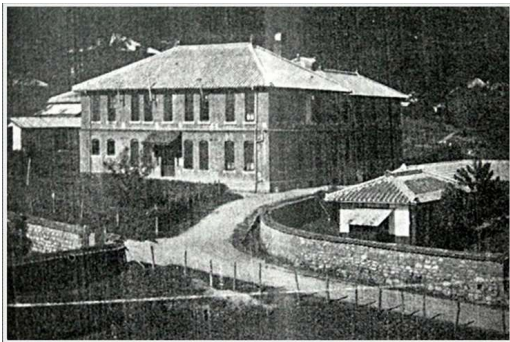
호주선교사들은 1891년 부산에 선교기점을 마련한 이후, 인접한 진주(1905년), 마산(1911년), 거창(1913년), 통영(현 충무 1913년) 등지에 선교지부(Mission Station)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의료선교 사업으로는 진주 배돈병원, 부산나병원(국립 상애원), 마산의 모자건강을 돌보던 건강센터(health center) 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육사업으로는 1895년 10월에 맨지스를 교장으로 하여 개교한 부산지역의 첫 여학교인 부산진 일신여학교(Busanjin Ilsin Girls' School)였다. 그 개교 목표는 “민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인과 어머니들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주지방에서는 시원여학교와 광림학교, 마산에서는 창신학교, 충무에서는 진주유치원 등이 대표적인 교육사업의 결과였다. 78명의 호주선교자 중 한국에서 풍토병 등으로 순교한 호주 선교사들은 8분에 달한다. 이들을 기념하는 묘역이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마산공원묘원 내에 조성되어 있다.

배돈병원

커를은 호주 장로교 여전도회가 지원한 병원설립 기금을 받아 진주 봉래동에 경남지역 최초의 병원을 설립하여 1906년 6월 시약소로부터 이전하였다. 설립기금은 과거 호주장로교 선교사로서 뉴 헤브리디즈(현재 바누아투)에서 일하다가 순교한 페이톤선교사 부인인 Margaret Whitecross Paton을 기념하기 위한 기금이었다. 1908년 작은 병원다운 건물이 지어지면서, 배돈병원(培敦病院)으로 명명되었다(사진). 그 정식 명칭은 “Margaret Whitecross Paton Memorial Hospital”이다.

1910년 안식년으로 호주에 간 커를은 건축가 캠프(M. H. Kemp)로 하여금 새로운 병원설계도를 만들게 하여 선교회에 제출했다. 1911년부터 본국에서 모금하여 새로 큰 병원 건축을 도모하였는데, 맥라렌이 진주에 도착하였을 때, 배돈병원은 새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병원건축은 1912년 화재로 늦어지다가, 1913년 11월 4일이 되어서야 끝나 개원할 수 있었다. 병원부지는 1,000여평, 건물은 178평이었다. 병원은 작으나마 종합병원이었다. 1912년 병원이 건축 중인 상태에서 외래환자는 연 7,000건에 달했다고 한다.⁶²⁾ 새 병원은 진주교회(옥봉리교회) 옆에 근대식 병원이었다.

맥라렌이 왕성하게 일할 당시 배돈병원에 의사는 3명이었고,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X선과, 등이었다. 1910년대 이미 배돈병원은 수술도 가능했다고 한다. 부대시설로 X선 촬영소, 수술실 등이 있었다. 병상수는 약 40개 었다.



건립 초기의 병원전경

배돈 병원은 1910년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진주지방 의료선교의 중심지였다. 진주의 호주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의 선교활동처럼, 선교병원 운영 이외에도 진주교회와 선교학교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해 1910년 3월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간호사 클라크 (Francis. L. Clerke, 가불란서)가 도착하여 배돈병원 간호부장을 맡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거창군 지역으로 다니며 순회전도를 하였고, 1925년부터 진주시원여학교 교장으로 일하였다. 그녀는 1936년에 병으로 병원을 사직하고 호주로 돌아갔다.

1911년에는 신경정신과 의사 맥라렌과 그 부인이 배돈병원에 도착하였다. 당시 진주의 인구는 4만을 넘었으므로 커를 한 사람의 의사로서는 이 지방의 의료 활동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호주장로교 선교부는 맥라렌을 진주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1912년 간호사 네피어(Gertrude Napier, 남성진)가 부임하였다. 그녀는 배돈병원 간호부장으로 일하면서 간호사 양성학원을 설립하였고 유아복지사업에도 힘썼다.

62)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451.

맥라렌은 1911년부터 1914년까지는 원장 커를을 도와 일반의사로, 그리고 커를이 귀국한 후 다음 1915년부터 서울 세브란스로 간 1923년까지는 원장으로 봉사하였다. 그 중간에 그는 일차세계대전 참전으로 1917년부터 1920년 년까지는 병원을 떠나 있었는데, 그 동안 1917-1920년 간에는 통영에서 의료사역을 하던 테일러(William Taylor. 위대인)⁶³)가 겸임원장으로 통영과 진주를 오가며 일했다. 1918년 여의사 데이비스(E. J. Davies. 대지안)가 맥라렌이 떠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배돈병원 의사로 파송되었다.

초창기 배돈병원에서 맥라렌과 같이 일했던 한국인 의사로는 세브란스를 졸업한 닥터 리가 1914-1916년 동안 일했다. 1916년 이후 얼마간은 “국립”의학교를 졸업한 닥터 선우가 맥라렌을 도왔다.

맥라렌이 일차세계대전 후 돌아와 1920-1923년 다시 원장을 맡았다. 맥라렌이 세브란스로 옮긴 1923년부터 1938년까지 테일러가 3대 원장을 맡았다.

테일러의 운영에 따라 배돈병원은 크게 발전하였다. 진주지역의 시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은 물론 전라도 등지에서도 많이 찾은 점으로 보아 당시 여러 지역 환자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테일러는 진주지방에 많았던 나병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돌보았다. 그러나 일제 당국이 도시에 나환자가 모이는 것을 금하였기에 문을 닫았지만 은혜를 입은 환자들이 그들이 받은 동정과 간호에 대한 감사의 증거로 돌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데이비스가 1939년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테일러가 원장으로 책임을 맡았던 16년 동안 배돈병원은 점진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외래환자는 1929년에 9,802명에게 1937년 20,700명으로 늘어났고 (하루 평균 63명), 입원환자도 298명에서 865명으로 늘어나서 병원수입도 6,757엔서 23,943엔이 되었다. 배돈병원 의료선교사들은 환경개선, 위생교육, 검역 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진주지방 사람들은 배돈병원이 비영리기관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압적인 일본인 의사들의 병원보다 배돈병원을 더 좋아하였다.

배돈병원 운영에 대하여 1928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稱頌 자자한 靑州 培敦病院>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서양선교사회의 사업으로 경영하는 배돈병원은 돈이 없어 약 못 먹는 빈민 환자를 무료로 입원시켜 치료하는 동시에,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백재관(白在官)씨가 무서운 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하여 더 살지 못 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복수술로 죽음의 길에서 소생하여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여의사 데이비스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원장을 맡았다. 1941년 이후 문을 닫는 1942년까지는 한국인 의사 김준기가 원장을 맡았다.

1930년대 배돈병원 의료진과 직원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원장 테일러, 의사 박용우, 의사 진 데이비스, 간호사 네피어, 간호사 에드가

63) 테일러(William Taylor. 위대인. 1877-1938)는 1887년 6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에든버러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는 처음에 뉴헤브리데스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하였는데, 그곳에서 부인이 죽었다. 그는 1913년에 한국에 왔으며, 그해 말 상해에서 간호선교사 앨리스 메인(Alice Main)과 결혼했다. 테일러 부부는 1921년까지 통영에서 시약소(dispensary)를 운영하면서 통영, 고성, 배둔 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 교회들과 전도처를 돌보았다. 1921년 진주의 배돈병원으로 옮겨 1938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III. 배돈병원에서의 맥라렌

맥라렌 부부는 결혼 직후 고향을 떠나 긴 항해 끝에 1911년 10월 30일 월요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때는 한국의 늦가을이었고, 부산항 부두에서 흰옷 입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호주 선교부의 동료 선교사들이 이들 부부를 환영하였다. 맥라렌 부부는, 배돈병원 간호사 클라크와 그 전 해에 한국에 와 있던 데이비스(Margaret Davies, 대마가레. 20여년전 순교한 데이비스 선교사의 조카)의 인도로 진주로 향하였다.

그들은 마산까지는 기차를 타고, 그리고 진주까지는 일꾼들과 당나귀로 진주로 여행하였다. 그 여행길에 그들은, “추수할 곡식”이 많은 아름다운 한국의 산과 들, 햇빛에 빛나는 붉은 고추가 널린 초가집 지붕, 처마 끝에 매달린 호박, 황금색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 대나무 숲을 등에 진 집들, 향아리를 인 여인들, 열심히 일하는 농부 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진주까지 가는 데는 3일이 소요되었다. 진주를 굽어보는 고개 마루에서 그들은 많은 초가집들이 중앙의 관청인 기와집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경, 그리고 강을 굽어보는 벼랑위에 서 있는 한 기념관(아마도 축석루) 등을 보았다.

진주에 도착한 맥라렌 부부는 배돈병원 뒤에 위치한 선교사관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곳은 지금의 진주 봉래동 지역이다. 집 앞에는 배돈병원이 있었고, 오른 쪽에는 선교부가 운영하는 시원여학교. 집 뒤로는 경사가 완만한 야산이, 그리고 그 주변으로 논과 밭이 둘러싸 있었다. 그들이 본 진주는 길이 넓고 사람들이 깨끗하였다.

도착 직후 부인 제시는 11월 11일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의 새 고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진주는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언덕에 둘러싸여 등지 틀고 있고, 옆으로는 넓은 강이 흐르고, 또한 마을 서쪽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어머님께 보낼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현상할 기회가 없습니다. (중략) 추수를 기다라는 보리, 막 푸르게 자라는 벼, 구석 구석에서 피는 야생화들, 언덕마다 울려퍼지는 짹 짹 찌는 찌꺼기 소리- 한국에서 세상은 분명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중략) 한국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놀라운 나라입니다. (중략) 한국인들은 인도인처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명랑하며, 얼굴과 대화를 밝게 하는 원만하고 적절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한한 선교사부부에게 시급한 과제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일이었다. 맥라렌 부부는 23세 정도 된 점잖고 세련된 기분 좋은 김씨라는 한국어 선생에게 하루 5시간씩 한국어를 배운다. 그는, 한국어 알파벳은 익히기 쉬우나, 한국어의 한자와의 연관성과 이로 인한 언어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낮춤말, 중간말, 높임말 등 대화 대상에 따른 상이한 어미구조, 그리고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표현방식 등이 한국어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는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가 어려웠다. 맥라렌보다 부인 제시가 훨씬 더 빨리 한국어를 잘 배웠다. 그녀는 이미 1914년경에 한자도 익혀, 논어를 읽었다고 한다. 그들 부부는 일본인 선생한테 일본어도 배웠다.

맥라렌 부부는 진주생활 초기에 그들이 보는 한국의 진기한 풍경들과 한국인들을 만나는 경험을 흥미있게 묘사하는 편지들을 가족에게 보내면서, 맥라렌은 한국과 지역 정치에 대해 많이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다.

맥라렌부부는 일하고, 여가에는 여행을 하는,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하였다. 제시는 정원 가꾸는 솜씨를 발휘하여 꽃들도 키웠고 채소를 가꾸어 먹기도 하였다. 남편이 귀가하여, 옷을 벗고 탕에 들면 부인은 희미한 등잔아래서 솔기마다 뒤지며 이를 잡았다. 저녁에 그들 부부는 또한 시간 있는 대로 같이 많은 독서를 하기로 하여 그대로 하였다. 그가 기록한 인상적인 장면 하나는, 등잔불 아래서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1859-1941)의 책을 읽다가 “elan vital”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득 깨닫는 장면이다.

그러나 진주에서 맥라렌 부부는 사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맥라렌이 외출할 때는 이를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이 따라다니곤 했다.

맥라렌은 1915년에 이르러 환자 보기도 바빴지만,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의 생각 중 하나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기적이 왜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기적”(miracle)에 대한 생각을 Korean Mission Field에 투고하였으나,⁶⁴⁾ 실어줄지에 대해 걱정하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다.

배돈병원 사역

진료

맥라렌은 멜본 대학에서 그가 존경해 마지 않는 리처드 스타웰 경(Sir Richard Stawell)으로부터 신경정신의학을 수련 받았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제대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받은 진정한 서구수준의 첫 번째 신경정신과 의사였다. 그러나 배돈병원에서는 타 분야의 환자도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명문 멜본의대에서 공부하고 수련하였고, 또한 소아병원(Melbourn Children Hospital)에서도 수련하였는지라, 소아과와 일반의사로서도 상당한 능력이 있었다. 그는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다.

맥라렌은 진주배돈병원에서는 정신과환자도 돌보았으나, 많은 일반환자를 돌보았다. 그는 거기서 겪은 한국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경이로운 경험들을 보고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의술은 실로 원시적인 상태였다. 의료수준은 한의학과, 무속신앙과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것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 선교사들은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진주 배돈병원은, 조선인들이 진맥, 약초, 침, 뜸 등에 의존하던 때, 서양의술을 접하도록 해 주었다.

당시 조선 땅에는 각종 기생충, 말라리아 등 각종 열병, 피부병, 종양, 폐결핵, 눈병, 등이 흔한 병이었다. 특히 나병이 있었다. 나병환자들은 떠돌아 다니거나 동네 밖에 따로 모여 살면서 동네로 구걸을 나왔다. 선교사들에게는 열병이 무서운 존재였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썼다. “한국에는 내가 분류할 수 없는 250여종의 열병이 있다”고 했다. 기생충도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당시 학계에 기생충 50여 종류가 보고되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충이었다.⁶⁵⁾ 그 외에도 요충, 십이지장충이

64) McLaren CI. Thoughts on the miraculous. The Korean Mission Field 1916;12(1):9-15.

9) McLaren CI. Australian medical works in Korea.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심했고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기생충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서 정신질환은 의사가 치료해야 할 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환자들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방황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들은 대개 씻지도 않고 반쯤 나체였다. 그들이 난폭하다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가 몸으로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밧줄로 묶었다. 또 다른 치료는 침과 뜸이었다.(맥라렌은 침과 뜸을 당시의 쇼크치료의 일종으로 보고 있었다) 정신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다.

맥라렌은 커를을 도우면서 간호사 클러크와 같이 일하였다. 날로 환자가 늘어 점점 바빠졌다고 한다. 뉴선교사가 쓴 맥라렌 전기에 의하면, 맥라렌은 내한한지 불과 얼마 안 되어 벌써 “용한 의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당시 경남지방에서는 배돈병원의 “마의사”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환자가 병원에 꼭 차면, 그는 환자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했다. 그는 부모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복음이 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써 보내고 있다.

맥라렌은 가끔 마주치게 되는 버려진 나환자들도 돌보았다.

1912년 7월 21일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맥라렌은 일본정부, 특히 한국에 와 있는 군사정부가 한국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그즈음 마을의 기독교인 집을 경찰이 방문하여 교화와 관련을 끊으라는 압력을 준다는 것이었다.

병원선교

맥라렌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느라고 해서 복음전파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직원과 환자들을 위한 예배를 매일 드렸다. 병원에는 외래환자와 각 병실에서 선교하는 전도사 한분과 전도부인 한분이 있었다. 그 전도부인은 맥라렌이 호주의 한 독지가로부터 년 10파운드를 기증 받아 사역에 임하게 하였다. 1916년에 맥라렌은 의료사업을 교회선교의 중심 부분으로 여겨 줄 것과 한국 노회에 요청하여 해마다 한주일 동안 이를 위한 헌금과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병원직원들 모두는 "병원전도협회"에 속해 있었다. 직원들도 진주를 떠나 멀리 떨어진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여러 집회를 주관하고 개인들에게 전도했다. 그들은 여선교사들과 진주교회 청년면려회 회원들과 협력하여 각 마을마다 주일학교를 개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아이들이 주변 지역에서 진주교회가 있는 봉래동까지 걸어서 교회까지 출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수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다. 병원에 기증된 자동차는 병원의 보배로서 먼 곳을 방문할 때 귀중하게 사용되었다.

지역교회 선교

맥라렌은 배돈병원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클라크, 라이알 또는 맥크레 등 선교사들과 동반하여 진주 지역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여러 마을들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조사들 또는 전도사들과 같이, 말을 타고 음식과 침구를 운반하기 위한 짐꾼들을 데리고 여행하였다. 음식으로는 깻통음식, 빵, 그리고 오트밀을 가지고 다녔고, 계란, 쌀, 닭고기 같은 것들은 현지에서 샀다. 잠은 교회에서 잤다. 그는 한국의 온도를 흥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여행할 때,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와 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교회에 도착할 때 교인들이 춥고 어두운 가운데 길에 나와서 따뜻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떠날 때 따라오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장면에 감명받곤 했다. 순회기간 중 맥라렌은 짧게나마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였다. 곳에 따라 교회에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아 폐허처럼 된 곳을 보기도 하였다.

1940:(May):624-628.

한국 농부들은 시계보다 해에 따라 생활하였으므로, 교회의 집회는 오전 4시 또는 저녁 9시에 열리기 일쑤였다.

진주의 선교사들은 때때로 마산으로 가서 선교회의나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맥라렌은 수시간 자전거를 타고 마산으로 가기도 하고, 인력거로 항구(아마도 삼천포)로 내려가 배를 타고 마산으로 가기도 하였다. 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 선교회의에 참석하기도 했고, 서울에서 열리는 선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기도 하였다. 1913년 3월에는 존 모트가 서울을 방문하여 모임을 가졌을 때 서울로 갔다.

진주의 선교사들은 진주에서 연례집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대개 일주간의 학습을 위해 각 지역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에게 주로 성경을 가르쳤으며, 그 외에 맥크레는 찬송가를, 그리고 클라크양이 여성에게 위생을, 남자선교사들은 한국인 남자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다. 맥라렌은 수없이 몰려드는 환자 진료 때문에 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915년 진주에서 호주선교부 연례모임 (뒷줄 오른쪽에서 둘째 셋째가 맥라렌 부부)

한국인 돕기

맥라렌은 진주에 있는 동안 의료와 전도 이외에도 여러 일에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맥라렌은 직원들을 사랑하여, “직원들의 기쁨은 자기의 기쁨이고 그들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다”할 정도로 사랑했다.

맥라렌은 대개 하층 계층인들 편에 서서 행동하였다. 인신매매의 덫에 걸린 사람을 위해, 그가 일본 천황의 한 칙령에 근거하여 경찰서에 신고함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하였다. 한 일본 여인이 그러한 일을 선교사들이 실제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소문 듣고, 스스로 진주의 한 매음굴로 옮겨와 맥라렌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맥라렌은 매음굴 주인과 지역경찰에게 통보하고, 특정 날자 특정 시간에 그 여자를 데려 나오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못하게 위협하였으나 결국 그는 그 일을 해 내었다. 그 이후 다른 한국 여인들도 그의 도움으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한번은 한 아리따운 유명한 기생이 자신을 첩으로 두고 있는 양반의 제안에 따라 교회에 나왔다. 그 결과 그녀는 결국 그 양반의 제안 때문에 그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그리고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도왔다. 부인 제시에게 한국말도 가르쳐 주었다. 제시가 한국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한국어 찬송가를 가르치며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노래라고 하

였다. 맥라렌이 세브란스에 강의를 하기 위해 서울로 갔을 때, 그녀는 맥라렌 부부를 따라 서울에 왔다. 한 중매쟁이가 접근해 다시 한 양반과의 첩관계를 맺기를 제안하였다. 제시는 말릴 수가 없었다. 단지 맥라렌이 그녀 같은 고귀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회체제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자, 그녀는 맥라렌 같은 좋은 분이 자신을 고귀하다고 했는가를 반문하면서, 그렇다면 그런 첩관계를 파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맥라렌이 호주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시가 동경(Tong-kyeng)이라는 소녀를 돌보는 이야기, 눈먼 거지 소녀를 데려다 씻기고 먹이고 편물짜기를 가르키는 이야기, 학교에서 나병이 발견되어 쫓겨난 아이를 부모가 데려갈 때까지 제시가 집에서 돌보던 이야기, 매독에 걸려 있는 버려진 소녀, 결핵을 가진 굶주리고 있던 어린 소녀 이야기, 등을 전해주고 있다.

세 양녀 입양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주에서 일하는 동안 세 한국아이를 입양하여 양육하였다. 이 입양사건은 이 지역에서 화제거리가 되었다.

맥라렌이 고용한 전도부인이 하루는 삼색이(Samseki)로 알려진 고아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왔다. 맥라렌 부부는 이 아이를 양녀로 삼고 생활과 교육을 담당하였다.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삼색이

다음에는 12살 된 맹인 여아도 입양하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자 일순간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맥라렌 부부는 이 아이를 양녀로 삼고 부양과 교육을 책임졌다.

7살 난 덕순이(Tuksooni)가 초라하고 야윈, 추위에 새파래진 얼굴로, 어느 크리스마스날 모임이 끝난 밤에, 학교 배란다에 서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시 이런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전형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대개 다음과 같다. 한 어머니가 첫 남편이 하도 난폭하여 2남 1녀를 데리고 남편을 떠난다. 그러나 그녀의 새 남편은 두 아들은 받아드리나(남녀차별로) 딸은 받아드리기 거부한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딸을 선교센터에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맥라렌은 이 아이도 양녀로 받아들였다.

IV.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출강

1913년에 호주선교부는 연합선교 프로젝트(united mission project)로서 서울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와 병원(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d Hospital)에 의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는다. 이 요청에 의하여 호주 선교부는 맥라렌과 커를을 방문강사(a visiting lecturer)로서 일년에 3개월 씩 서울에 가서 세브란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커를은 내과를 강의했고, 맥라렌은 신경정신의학학을 주로 강의 하였지만 소아과학, 안과학 등도 강의 하였다.⁶⁶⁾ 맥라렌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다가, 1923년 전임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그는 서울에서 머물 때는 반양식의 한옥에 머물렀다. 처음으로 1913년 10월에 서울로 갔는데, 당시 몹시 추웠으며, 그래서 온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세브란스의 예비슨이 초청강사들을 위한 리셉션을 열기도 했는데, 맥라렌은 거기서 게일을 만나 그가 왕립아시아학회에서 한국 신화와 다른 나라의 신화를 비교하는 강연을 듣고 매혹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예비슨은 수시로 맥라렌이 빨리 세브란스에 전임으로 올 것을 재촉하였다. 호주선교부도 그러기를 원했으나, 후임이 없어 그는 진주를 떠날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는 1916년 10월부터 세브란스에서 일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는 1916년 2월 3일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진주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한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썼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맥라렌 부부는 불교 절에서 수일간 머물기도 하고, 세브란스의 러들로 교수의 소개로 북쪽지역(재령?)의 선교본부로 작은 말을 타고 며칠간 여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맥라렌은 수시로 한국의료선교협회(Korean Medical Missionary Association) 회의에 참석하러 서울로 올라갔다.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맥라렌의 형 부르스가 참전했는데, 1916년 솜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 받은 맥라렌도 참전을 결심하였다. 1917년 12월 말 조선을 떠나 프랑스 최전방 Noyelles의 Chinese General Hospital에서 1919년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다. 전투는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여, 그는 더욱 성숙해졌다.

세브란스 신경정신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는 1917년 소위 일본식의 ‘교실’ 체제로서 정신과 교실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졌다. 맥라렌은 1923년 세브란스 정신과의 전임(專任)과장이 되었고, 1938년까지 재직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면서는 주로 정신과 환자와 신경과 환자를 돌보았고, 학생들에게 신경정신과를 강의했지만 소아과와 안과도 강의하였다. 그는 서구(호주)와 한국 간에 여러 질병의 역학과 그리고 증상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들을 흥미있게 관찰하고 이를 보고하고 있다. 그는 저술 도처에서,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한국인의 우수성에 대한 감탄을, 그리고 정신과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수많은 증례보고는 당시의 한국사회의 문제점들과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보게 한다.

맥라렌은 1929년 5월 약 2개월 예정으로 비엔나로 연수를 떠났다. 그는 비엔나에서는

66) 맥라렌. 2013년 10월 11일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Julius Wagner-Jauregg가 진행마비에 대한 malaria parasite 주사로 치료하는 역사적 장면을 목격했고, 한창 명성을 떨치고 있던 정신분석에 대한 강좌를 들었다. 기독교적 관점의 정신치료(영적치료)를 추구하고 있던 맥라렌으로서는 성적 접근의 Freud의 정신분석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반면, Adler와 Jung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그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간 동안 배운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동시에 의사로 일하면서, 그간 환자 진료와 독서 그리고 의과학에 대한 성찰 등을 종합한 결과를 임상에 실천하고, 저술하고, 가르쳤다.

그는 과학적 진리가 기독교적 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근대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이 줄어들고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과학적 내지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힌 결과이며, 이는 하나님이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는 명령을 수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많은 환자에서 당시의 의학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가 기독교적 신앙으로 접근했을 때 치료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맥라렌은 당시 조선의 정신병 환자들이 사회에서 내몰리고 조롱받는 등 비참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특히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들을 위한 현대적이며 인도주의적이며 기독교적인 입원 시설을 건축하기를 몹시 원했다. 마침내 1930년 미국인 기부자의 도움을 얻어 세브란스병원 내 한 귀퉁이에 작은 정신병동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교육에 있어, 1917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일람에 따르면 정신의학 강의는 신경학과 함께 4학년 동안 일주일에 두 시간씩 이루어졌다. 교재는 일본의 구레(吳秀三)의 교과서였다. 특히 그는 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병원의 진료에서 정신치료가 적절한 통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학생들에게 세브란스 뿐 아니라 모든 선교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세브란스 교과과정과 교재를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그는 의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키우기 위해 뿐 만 아니라, 의료의 열정적 예술(compassionate art of medical practice)과 과학적 의학(scientific medicine)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내 잡지, Korean Mission Field라는 한국선교협회가 발간하던 잡지, 의료선교사들의 학술지 Chinese Medical Journal, 그리고 호주의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등등에 강연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인을 정신과의사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비엔나의 학문적 분위기에 감명을 받은 맥라렌은 이중철과 같은 제자들도 비엔나에 와서 그와 같은 연구의 기회를 갖기 희망했다. 나중 그는 한국인 제자 이중철을 모교인 멜본의대와 후꾸오까제국대학 의대(박사학위), 중국 협화대학 등에서 연수 받도록 하였다. 그는 세브란스를 사임한 후 다시 진주배동병원에서 일할 때, 그를 따라 내려온 세브란스 출신 제자 이봉은과 같이 일하며 가르쳤다. 나중 그가 호주로 귀국한 후, 1950년에 예자 이봉은을 멜본대학 정신과로 초청하여 2년간 정신의학을 공부하도록 도왔다.

맥라렌의 기독교 사상은 의료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 자신 진주에서 세 고아를 양녀로 받아들여 교육시키고 결혼할 때까지 양육하였다. 또한 맥라렌은 한국사회의 여러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활동은 공창폐지 운동과 최저생활 임금제도, 노사제도, 자선 무료병원, 주일 휴무 등등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여성을 위한 성위생(Sex hygiene), 소녀들 성교육, 여성차별 금지, 축첩제도 반대 운동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드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이러한 활동의 근거를 기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정신의학에서 찾았다. 정신의학은 그에게 인간이 앓는 정신질환이 민족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함을 발견하게 해 주었는데, 이는 민족간의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맥라렌 부부와 딸 레이첼

맥라렌은 신사참배문제로 세브란스 당국과 갈등 중에 있다가 1938년 사임하고 진주 배돈병원으로 복귀하였다. 맥라렌의 후임으로 그의 제자 이중철이 교수직을 이어받았다. 이중철은 한국 최초의 신경정신과의사이자 교수이다. 그러나 그도 결국 스승과 비슷한 문제로 학교를 사임하였다. 세브란스 신경정신과는 내과에 통합되었다.

V. 부인 제시

부인 제시 맥라렌 (처녀때 이름 Jessie Reeve)(1883-1968)은 역시 인도에서 사역하던 유대인 크리스천으로서 저명한 호주선교사였던 찰스 리브(Charles Frederick Reeve, 1859-1941)의 7남매 중 둘째로 Hobart에서 출생하였다. 그녀도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길을 꿈꾸었다. 제시는 미래의 시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멜버른의 Presbyterian Ladies College에서 공부를 마친 후, 1901년 18세 때 학생기독교운동의 Healsville conference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학생자원선언에 서명하였다.

제시는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역사와 철학을 전공하여 1911년 문학석사학위(MA)를 받았던 재원이었다. 그녀는 1910년 학생기독교운동의 여성 순회 간사로 일했는데, 이때 같은 순회간사였던 맥라렌을 만났다. 맥라렌은 이 젊은 여성에게 호감을 그리고 이어 애정을 가졌다. 이들은 선교사로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하고 결혼하였다.

제시는 남편 맥라렌의 훌륭한 파트너로서, 남편의 사역에 잘 내조함으로써 그를 빛나게 했다. 제시는 진주에서부터 남편의 사역을 도와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시원학교에서 가르치고, 특히 유치원을 세웠다.

유치원

1916년 2월에 제시선교사는 개인 부담으로 진주에 기독교유치원을 개원하였다. 제시는,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적인 양육이 절박함을 느끼고, 열성과 사명감에서 희생적으로 가르쳤다. 제시는, 성경에 “어린 아이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예수)게 행한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실천하였다. 수준 높은,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이 되도록 선교사들은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실행하였다. 결석자가 있으면 직접 가서 데려오고 공책, 연필을 무료 제공하였다. 자모회와 학부형회가 결성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기구와 비품을 찬조받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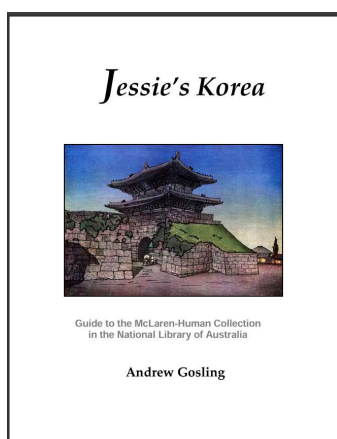
이 유치원은 서부경남 최초의 유치원으로, 아마도 이 진주기독교유치원이 한국유치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첫 11년간은 미인가 유치원이었으나 알렌(Arthur W. Allen, 안란애) 목사 이름으로 1926년 5월 21일 정식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1940년에 조선 총독부의 유치원 폐교령에 따라 문을 닫고 말았다.

이화여전, YWCA, 그리고 한국문서선교회와 아시아왕립협회

남편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왔을 때 그녀는 이미 뛰어난 선교사였다. 제시는 서울의 이화여전에서 행정이사로서 또 교수로서 영어와 성경과 역사를 가르쳤으며, 정원디자이너로서 신축되던 캠퍼스 정원을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한국의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 김필레, 김활란, 아펜젤러(Appenzeller), 등과 더불어 한국 YWCA 창설을 도왔다. 이를 위한 전국여성회때, 그들이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Building for days we may not see"를 위해 기도했다 한다.

그녀는 문학, 특히 시를 사랑하였고, 언어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문학 석사로서 고전 영어, 불어, 인도어에 조예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희랍어와 라틴어도 공부하였다 한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한국어와 한문과 일본어도 배웠다. 그녀는 한국말을 남편보다 더 잘하였다. 그런 실력으로 그녀는 한국문서선교회와 왕립아시아협회(the Royal Asiatic Society) 한국지부의 사서로서 봉사하였다.



호주 국립도서관 발행. 제시 맥라렌의 전기

특히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영미에 소개하였다. 한국 고서와 골동품을 수집하고, 경주에 대한 한문 고전인 동경잡기(東京雜記)⁶⁷⁾를 영역하였다. 제시는 또한 중국의 유

학 서적과 한국의 시들도 영어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제시는 심장이 안 좋아 늘 고생을 했으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친절하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였고, 상담가였다. 그녀의 관심과 돌봄은 한국인 뿐 아니라 일본인, 다른 외국인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녀를 아는 사람으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그녀가 관리하던 집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 찼고, 그들 사이에는 항상 따뜻함, 평화, 그리고 유머가 가득하였고, 지적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곤 하였다.

맥라렌은 그의 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때때로 나의 정신적 및 영적 에너지가 중단되어 나의 선교 봉사가 계속되지 못하게 될 때. 그녀의 끊임없는 용기와 지속적으로 더해가는 도움을 주었음에 대해 감사해 마지 않는다.”

그녀의 소장품과 자료 136개는 맥라렌부부의 딸 Rachel Human여사에 의해, 1984년 캔바라의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 기증되어, McLaren-Human Collection으로 소장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남반구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한국관계 컬렉션이라 한다.

VI. 신사참배 반대운동

맥라렌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신경정신과 교수로 일하는 동안 점차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압박의 강도를 더해 갔다. 맥라렌은 급변하는 동양정세,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신도(神道) 이데올로기를 보면서 식민지 한국에 어떤 상황이 닥쳐올까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시국에 따라 한국교회도 시련을 받기 시작하였다.⁶⁷⁾

1930년대부터 일본제국의 식민지 조선의 하늘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맥라렌은 일찌감치 일본의 문제점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1932년 11월 27일 누이 매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부산으로 가는 가차에서, 북으로 가는 열차로 군인들이 만주로 가는 광경을 보았다고 했다. 열차 벽에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맥라렌이 탄 기차에는 일본인들로서 만주에서 전사한 병사를 화장한 재를 본국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북으로 가는 병사들에게 열렬한 환송을 인사를 보내었다. 철도 연변에는 교사의 인솔에 따라 한국 학교 학

67) 『동경잡기』(규장각 도서번호는 1255,1375,3275,5314,5458)는 57BC부터 AD1669년까지의 동쪽의 수도, 곧 옛 경주에 대한 역사, 풍물 지리지 이다. 동경지(東京誌) 혹은 동경통지(東京通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책의 내용은 17세기 중엽 이전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상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서양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인에게 신비로운 책으로 이해되었었다. 제시의 동경잡기 영역본의 제목은 『Kyengju, Korea's ancient capital: An historical miscellany 57 B.C. - 1669 A.D.』였다. 그녀가 번역한 이 책은 사장될 뻔 했으나, 1986년 제시의 외동딸인 레이첼 휴먼에 의해 『Kyung Ju, Korea's Ancient Capital』이란 이름으로 편집되어 재출판 되었다.

68)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교회를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 한국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한국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한국교회를 궁극적으로 일본 교회에 병합시키기 위해 교회 안에 ‘친일 어용세력’을 양성하였다. 그런 목적에서 총독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받아 나타난 것이 1938년 5월 8일 조직된 조선기독교연합회(朝鮮基督教聯合會)이었다. 이 연합회의 초대 위원장은 일본인 니와(丹羽清次郎)였는데, 그는 ‘한·일 합병’에 맞추어 1910년에 한국에 나와 주로 기독교 청년회를 통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한국교회를 일본에 예속시키는 작업을 추진한 인물이었다. 1940년 이후 일제는 보다 효과적인 종교 통제를 위해 교파를 초월한 단일 교회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 본토에서 1941년 6월 단일 개신교회로 일본기독교단(日本基督教團)이 창립된 것에 맞추어 한국 쪽에서도 1945년 7월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이라는 단일 개신교단이 조직되었다. 이 교단은 그 설립을 주도한 교회 지도자들이 보인 신사참배 순응 등 ‘반민족적’(反民族的)이고 ‘비신앙적’(非信仰的)인 행태로 인해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생들이 도열해 군인들에게 환송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평소 일본에 대해 단순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토 총독에 대해서도 그의 선의, 책임감, 애국심 등에 대해 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천황 숭배나 군국주의가 발흥하는 것을 보고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본주의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라 예상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천황제도를 신성불가침으로 하기로 한 것은, 맥라렌의 기독교적 양심으로 볼 때는 신성모독이었다. 이 일본주의와 기독교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쟁이나 경제적 압박이 일본을 바뀌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그는 기독교교회가 일본을 바뀌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도 없었다. 단지 진리를 증거함에 의해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대속적 사랑의 희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맥라렌은 몹시 위험한 운명의 시간이 그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다. 1933년 2월 19일, 맥라렌은 한 꿈을 꾸었을 누이 매리에게 편지로 말하였다. 꿈에 일본 육군 장군인 아라키⁶⁹⁾가 자신을 메이지신사에 절하게 하려고 강제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꿈으로 인해 그는 이제 일본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투나 폭탄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아라키와 그의 군대는 광신자들로써 그들은 그들이 말한 바를 실행할 것이며, 강요당하기 보다 죽음으로 끝내기를 택할 것이다” - 그는 일본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급기야 1935년부터는 신사참배⁷⁰⁾가 강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었다. 전국에서 '신사불참배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이후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생활의 순결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고된 싸움이 되었다.⁷¹⁾

69) 아라키(荒木 貞夫. 1877-1966). 일본 군인, 일본제국 육군장관. 민족주의 일본 정치가로, 전후 A급 전범으로 복역하였다.

70) 신사참배(神社參拜)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천황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해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참배하게 한 일이다. 신사는 일본의 민간종교인 신도(神道:Shintoism)의 사원이다. 신사참배와 천황의 신격화는 일본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 지배에도 이용되었다. 한국내 신사 건립은, 1910년 전에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해서였지만,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호와 육성 아래 신사의 관·공립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게까지 신사참배와 신도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하여, 1935년경부터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일본국기 게양, 동방요배와 함께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대 탄압과 수난의 역사가 시작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이른바 '황민화(皇民化)운동'의 고조와 함께 학교에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다음 단계로 일반인들은 물론 교회에까지 참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웠다. 각급 학교에는 '호안덴(奉安殿)'을 세우고, 각 가정에는 '가미다나(神棚)'라는 가정 신단(神壇)까지 만들어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하였다.

71) 1940년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일제 검거'에 의해 투옥되었다. 주기철(朱基徹), 이기선(李基善), 한상동(韓尙東), 주남선(朱南善), 손양원(孫良源), 박관준(朴寬俊), 안이숙(安利淑), 고흥봉, 최덕지 등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 당시 투옥된 신자는 약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50명 정도는 옥사했고, 해방 후 30여명이 살아 출옥하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정책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탄압과 회유에 못이겨 다수의 교계 지도자들이 친일적 배교의 길을 갔다. 일찍이 1936년에 천주교가, 그 다음 1938년에 감리교가 그리고 이어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 대부분 교단이 일제에 굴복하였다. 당시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단이었던 장로교는 1938년에 일제에 굴복하였다.

선교사들의 대응

신사참배가 강요 문제는 선교부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부가 운영하는 선교학교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국의 기독교회와 각국 선교부들은 이러한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 반대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신사참배를 수용함으로써 학교교육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신앙상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학교 폐쇄를 감수하든지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떤 선교사들은 교회와 학교 병원을 구하기 위해 신사참배에 동의하려고 했고, 또 다른 선교사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하였다.⁷²⁾ 그 결과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각국 선교부들은 공동전선을 수립하지 못했다.

1938년경부터 일제는 선교사들의 모든 공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주한 미공사관 게이로드 마쉬(Gaylord Marsh)는 모든 미국인은 한국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기 시작하였다. 선교부의 사역도 많은 영역에서 제한되었다. 점차 선교학교들이 폐교되기 시작하였고, 주한 선교사 수도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40년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의료 활동만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다. 1941년에 이르러 선교사들의 “추방”이 시작되었다. 안식년으로 귀국했던 선교사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1941년 11월 16일 특별 철수선 마리포사(S. S. Mariposa)호가 한국을 떠났는데, 이 배는 대부분이 미국인 선교사였던 외국인 219명을 태우고 있었다.

1939년 한국사회에는 전쟁과 평화, 정치, 반영국 소요(anti-British agitation) 등등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호주선교부내에는 신사참배 반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신사참배 문제는 선교부만이 아니라 맥라렌 자신에게도 중요한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 그는 진주지방에서 신사참배 건에 대한 호주장로교선교부의 여론과 반대 입장을 대변하면서, 볼랜드와 스터키 선교사 등과 더불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면서, 부산, 경남지역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지원하였다.⁷³⁾ 그는 다수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좋았으나, 소수의 나쁜 사람들(친일파 기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 김길창 같은 교회지도자들이 그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한탄스럽게 생각하였다.

호주장로교선교부는 1939년 진주에서 모인 회의에서 신사참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결정하였다. 이 발표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1939년 5월 25일 맥라렌은 호주장로교 선교부 대표로서 볼랜드 선교사와 같이 조선총독부 7대 총독 미나미(米次郎)를 총독실에서 면담하고, 신사참배강요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 총독부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는 왜 기독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지 설명하고 미나미와 논쟁을 벌였다. 미나미 총독은 이들을 정중하게 대했으나, 이 방문은 이후의 결과로 보아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라렌은 한국의 순교자적 크리스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1940년 12월 8일 편지에서 그는 최덕지⁷⁴⁾의 죽음을 무릅쓴 금식과, 강신애⁷⁵⁾(최덕지의 동지)의 역시 죽음을 무릅쓴

72) 선교사로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지도 후원했던 대표적 인물로는 헌트(Bruce Hunt, 한부선), 해밀턴(Hamilton, 함일돈), 맥라렌(C. I. McLaren, 마라연), 테이트(Miss Tate), 호킹(Miss D. Hocking) 등이 있었다.

73) 이상규: 마라연(馬羅連) 선교사. 대한기독교서회(편): 내한 선교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P. 147-176.

74) 통영출신으로 마산의신학교 졸업. 1924년 남편과 사별하고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졸업한 후, 마산지역 여전도사로 활약. 1938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 한상동목사 등과 반대운동을 하다가 194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해방후 최초의 장로교 여자 목사가 되었고, 재건교회를 설립하였다. (필자 어머니이신 변증이 사모가 어렸을 때 최덕지 전도사에게 감화를 받았다.)

75) 1940년 6월 23일 진주에 최덕지가 방문하여 최덕지 가족들과 강신애 등 교인들 10여명이 예배모임을 가졌을 때, 진주경찰서 고등계 형사 김을도가 와서 모두 체포하여, 구속되었다.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최덕지는 금식을 하였다. (정연이. 이 한목숨 주를 위해: 최덕지목사

재판에서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적 금식은 인도의 간디가 즐긴 호화로운 금식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논문 양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는 맥라렌의 보호로 잘 자라 평양의 맹인학교, 서울 성경학교에서 수학하고, 경남지방 순회 전도부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맥라렌은 그녀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녀 자신은 볼 수 없었겠지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였다.

맥라렌은 이러한 한국 기독교인 이야기는 후대 수세기에 걸쳐 전해질 것이라 보았다. “타협 없는 순종은 모든 종교적 자유의 초석, 나아가 모든 다른 자유, 문화와 문명의 초석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맥라렌의 신사참배 반대의 이유

맥라렌은 명치정부 하의 일본에서 출생했고,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으므로, 일본의 국가주의와 신도주의, 곧, 신도국가주의(Shinto Nationalism)의 본질과 신사참배강요의 깊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⁷⁶⁾ 그는 신사참배 강요를 성경 말씀에 의거 분석하였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 비교하여 생각하였다. 그는 불의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싸울 것인가 평화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해결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였다. 즉 전쟁의 신에게는, 배신자나 공격자에 대해, 신체적 저항에 참여하기보다, 자신이 처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반대되는 “진리를 증거함”으로, 곧바로 반격을 하는 것이었다.⁷⁷⁾

“나의 진리에 대해 증거함은 육체적 열매라기보다 영적인 뿌리와 관련된다. 그것은 동료인간에 대한 사악함과 잔인함 보다 인간의 원초적인 신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다. 내가 일본에 대해 마음을 다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일본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된 사이토 남작에게 “일본이 정의, 평화, 능력, 그리고 번영에 서기를 기도한다”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마산의 한 모임에서 일본 신사참배에 대해 반대하면서, “일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고, 우리는 그 증거를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맥라렌은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일본의 국가신도주의의 내용을 조사연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호주 장로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가 남겨둔 관련 문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확신이 있었고, 국가 권력의 한계에 대한 서양교회 전통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시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1940년 4월 28일 편지에서 “국제적 상황, 국가적 상황, 종교적 상황, - 인간성이 유혹되는 거대한 이해관계들, 압박과 저항, 도전과 응전, 새로운 이교 신앙과 인본주의의 거대한 힘과 기독교와의 충돌, 등, 나는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의해 던져졌는지 깨닫게 됨에 따라 몸과 마음이 떨게 된다”라고 하였다.

<http://blog.naver.com/kjyoun24/60024089642>

76) 이상규: 마라연(馬羅連) 선교사. 대한기독교서회(편): 내한 선교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서울. 147-176.

77) 맥라렌. 매리에게 보낸 편지 1938년 7월 3일

VII. 배돈병원의 마지막

신사참배 문제로 세브란스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자, 1938년 그는 세브란스를 사임한 후 다시 진주배돈병원에서 일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속적으로 기독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비판하였으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다른 외국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이 모두 떠난 후에, 진주 배돈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를 돌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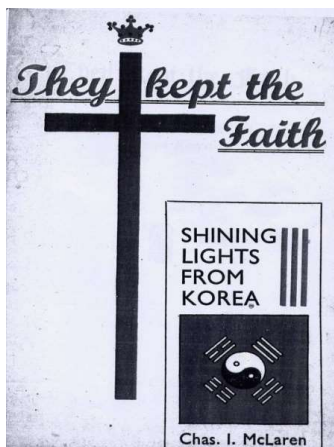
배돈병원에서도 일제는 배돈병원 전도사를 포함하여 병원직원 몇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 신사에 참배시켰다. 서울 출장에서 돌아온 맥라렌은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병원 직원 중에 적개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듣고, 공개적으로 언명하였다.

“나는 이 나라에서는 손님이다. 손님은 그 나라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이 땅의 통치자 하에 있다. 내가 처벌받을 행동을 하면 마땅히 처벌받을 것이다. 나야가 내가 만일 이 병원 안에서 파괴적인 말이나 해서는 안될 말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경찰에 의해 요구받으면 내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충실히 말해야 하며 뒤로 감추지 말아야 한다.”

일제는 진주교회 문을 닫게 하였다. 성경공부 모임도 막았다. 병원 원목 볼랜드 목사는 병원직원과 환자들을 위해 기도회를 열어 난국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배돈병원 원목으로 시무하던 이현속장로는 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1940년 8월 체포되어 사천 및 부산 북부경찰서를 전전하며 형언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옥고를 치르는 동안 그의 아내 홍여사는 교회가 일본에 징발 당하자 자신의 방을 기도실로 삼고 기도생활을 하던 중 병을 얻어 1943년에 소천하였다. 이현속 장로도 1945년 해방 3개월을 앞두고 평양감옥에서 순교했다.

맥라렌은 호주로 추방된 후, 1942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한국으로부터의 광채』(They kept faith. Shining light from Korea)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주기철, 이현속 등 4명의 순교자의 짧은 전기가 들어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맥라렌은 병원일을 열심히 하면서 서울로 출장도 가고, 선교 일로 일본에 가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이차대전이 임박해 졌다. 맥라렌은 조금이라도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1941년초 일본당국은 병원책임자로 친일적인 한국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여, 데이비스는 원장직을 사임하고 대신 한국인 외과의사 김준기가 임명되었다. 여의사 데이비스는 배돈병원에서 25년째 근무한 해인,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 당하였다. 이때 맥라렌의 부인과 딸 레이첼과 진 데이비스 등 다른 호주선교사들과 함께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한국을 떠났다. 맥라렌은 한국에 그리스도인 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홀로 배돈병원에 남아 선교회 일을 보면서 병원을 지켰다.

일제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일제는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맥라렌을 포함한 4명의 호주선교사들을 체포하였다.

한국인 원장 김준기도 결국 그해 1941년 12월 8일 치안유지법으로 체포되어 해방될 때까지 4년간 미결수로 감옥에 있었다. 대신 이주섭 의사가 병원에 근무했지만, 1942년 모든 병원 활동이 중단되었다.

닫혀 있던 배돈병원은 해방후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오지 못하였다. 비어있던 병원은 일본에 의해 징용이나 징병 갔던 사람들, 소위 “해외 귀환 동포”를 위한 수용소가 되었다. 그들은 극빈자들로서 그 모습은 비참하였다 한다. 그리고 6.25사변시에는, 진주가 공산 치하에 들어갔을 때, 진주시 인민위원회가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돈병원 건물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병원은 미군이 폭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 폭격기들이 사정없이 폭격하여 병원건물은 파괴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호주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이 젖어있는 배돈병원은 진주 땅에서 살아졌다.

VIII. 투옥, 추방, 그리고 고국에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식민지 정부는 1941년 12월 8일에 맥라렌을 체포하여, 진주감옥에 가두었다. 그는 11주간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의 경험을 『Eleven weeks in a Japanese Police Cell』라는 책으로 남겼다.

1942년 2월 23일 그는 석방된 후, 부산에서 약 3개월 동안 한국에 가장 마지막 까지 남아있던 다른 3명의 호주선교사들과 같이 수개월간 감시하에서 연금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1942년 6월 2일 추방되었다. 그들은 배에 태워져 일본을 거쳐 중립국 포르투갈령 서아프리카에서 포로교환으로 해방되었다. 맥라렌은 추방 5개월 만에 1942년 11월 호주 멜본으로 돌아왔다.

호주 귀국 후에도 맥라렌은 일반인들과 군대와 교회를 대상으로 저술과 강연을 통해 일본의 조선 식민통치, 천황의 신격화, 일본군국주의와 전쟁 등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알렸다.

종전 후 맥라렌은, 아마도 건강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더 왕성하게 교회 활동과 정신의학에 대한 저술과 강연활동과 기독교적 이상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사회활동과 선교지원활동, 의사회 활동, 정치적 활동 등을 계속하였다. 특히 1949년 호주 정부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백호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것처럼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는데, 한국전쟁 발발후 그는 한국을 돕

자는 운동을 하였다.

그는 세브란스에서의 제자 이봉은을 멜본의대 정신과에 연수하도록 초청하였다. 이봉은은 의대 졸업후 배돈병원에서 맥라렌을 도왔는데, 맥라렌이 체포되자 만주로 도피하였다. 해방후 그는 진해에서 의사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봉사를 하였다.

맥라렌은 예수의 일생에 대한 그의 저술을 교정보던 중, 1957년 10월 9일 멜본 근교 Kew 의 자택에서 7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Box Hill 묘지에 묻혔다. 유족은 부인 제시와 딸 레이첼이었다.

1968년 3월 28일, 부인 제시도 사망하여, 남편 곁에 묻혔다. 1985년, 딸 레이첼(Mrs. Rachel Human)은 어머니가 수집했던 한국 관련 서적들과 소장품들을 캔바라에 있는 호주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에 기증하여 ‘맥크라렌 휴만 장서’(McLaren-Human Collection)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당시 호주 국립도서관은 제시에 대한 짧은 전기를 발간하였다.

IX. 맥라렌의 인품과 사상

맥라렌은 키가 크고 마른 몸매의 인물이다. 1927년 그의 스승인 Sir Richard Stawell을 기리는 기념강연에서 Sir Stawell이 맥라렌을 소개하면서, “위대한 지적 능력, ... 탁월하게 훌륭한 인품, 끈질기고 정직한 높은 인생의 목표, 그리고 매우 명량한 기질“ 을 말하고 있다.

1958년 New 선교사가 쓴 맥라렌의 전기 서문에서, 호주 장로교 선교위원회 George Anderson위원장이 묘사한 맥라렌의 인품은 다음과 같다: “Dr. McLaren은 신비하고 매우 비범한(extraordinary)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인격자이다. (중략) 우리가 그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 자신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깊은 사상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중략) 그의 강점은 그의 인생을 지배한 확신에 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우주와 그 모든 법칙의 통치자라는 확신,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신을 세계를 향해 나타내셔서, 인간을 그 죄와 실패에서 건져내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셨다는 확신이다. (중략) 프랑스에서 포화에 휩싸였을 때, 일본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최종 결과는 선할 것이라는 끈질긴 믿음을 간직했다. (중략) 그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과 동료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동료. 내쫓긴 나병환자, 억압받는 노역자, 버려진 어린 아이, 그 모두에 대해 그는 살과 피가 그 구주됨을 세상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중략) 그리하여 그는 그가 좋아했던 영원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

1) 신앙고백

그는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을 남겼다.⁷⁸⁾

경제공황에 강타당한, 계급간 증오로 증독된, 국제적 의심에 의해 배반된, 전쟁에 의해 유린된, 우리 문명이 대단한 파괴로 위협되는 세상에서, 정신의학의 한 의사 내지 진료의가 그의 환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떤 신앙을 찾아야 할까? 나는 나 자신의 신앙고백을 정의하기 위해 추구해 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신조를 포함한다.

나는 과학을 믿는다

이 세기에 Kipling이 “기적들”이라는 진실한 시를 쓴 이후 30년간 응용과학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 즉 기적을 보여주었다. 인간은 땅과 바다 위 뿐 아니라 아래 물속에 그리고 위의 공기 속에 있는 것 까지도 정복해 왔다. 빵과 고기들도 증식되어 왔다. 역병은 멈춰 섰고 병은 치유되었다. 마비성 치매(주 매독 후유증)는 10년 전 까지도 모든 뇌와 정신병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통제되어 왔고 성공적 치료법이 적용되었다. 나병은 깨끗하게 되었고, 인간 수명은 많이 연장되었으며, 평균 사망률은 한 세대 안에서 반으로 줄었다.

우리 시대에 과학은 물리적 세계의 궁극적 성격에 대한 주목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James Jean 경은 “신비한 우주”의 구조에 있어 내재한 수학적 정신에 대해 서술하였고 다른 수학물리학자는 “나에게는 물질이란 형태를 가진 사고이며, 시간은 논리적 과정으로 성숙화 된다.”고 썼다. 과학은 인체의 생명기능의 방식과 방법을 밝혔고, 전의식의 마음의 비밀들을 추구하였다. 과학은 지질학적 시대의 장들을 부분적으로 읽고 있고, 그리고 비록 그 수수께끼가 아직 다 풀리지 않고 있지만, 창조적 성령이 그의 작업에서 시대를 관통하여 새로운 종을 나타나게 하는데 사용한 방법의 신비를 부분적으로 풀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하기도 하고 섭정하기도 하신, 인간과 생물학적 창조 간의 관계의 신비도 부분적으로 풀었다.

이제 인간은 세상을 꿰뚫어 말하고 본다.

나는 철학을 믿는다.

내가 철학적 가르침을 훈련받은 바 있다. 어릴 때부터 나의 마음에, 외부세계란 관찰하는 정신의 투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이해하는데 (비록 나는 그것이 약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나는 칸트의 “moral imperative”(도덕적 명령)에 대한 가르침, “practical reason(실용적 이성) - “신, 자유, 불사” 등의 이론에 대해 보상할 수 없는 빛을 쬔다. 나는 (내 인생의 기억하는 경험 중 하나로) 먼 한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Bergson의 철학을 설명하는 책을 읽던 중, 갑자기 그 모순에 해결, 즉 법의 통치의 사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불확정성(indeterminism)과 자유의지의 사실이 알게 되었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현인들의 사상의 역사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그를 발견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낀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사실과, 또 사람이 지혜에 대한 굶주림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 지혜에 대한 굶주림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진리를 향한 철학의 오랜 탐구에서 생성된 지혜의 열매에 의해 만족되었다.

나는 낭만과 낭만적 상상을 믿는다.

어린이로서 나에게 동화가 매력적이었으나, 그러나 불행히도 당연하지만 동화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서 로맨스는 사실이 되었고 동화는 동화가 매우 진실하기 때문에 더 흥미가 있게 되었다.

나는 인간의 본성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할 모든 것 위로, 인간과 인간의 성취를 높이는 인본주의를 믿지 않는다.

나는 Walter Lippmann이 그의 윤리적 이상에 대해 그가 “고등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가 용어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요청한 노력의 영광에 대해서, 그의 도덕적 정직성과 그의 진지함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도전한 금욕주의와 세련된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우리 앞에 제시한 매우 세련된 이상들에 대해서, 나는 많은 감사를 한다. 그런 인본주의는 더욱 많은 제자들을 물려 모을 것이다.

나는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 즉 신의 형상(divine image)의 표식을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을 믿는다. 나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일어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진실로 그의 집이라고 아는, 진리

78) My beliefs C.I McLaren Korean Mission Field 28-4, 1932, 75-77

와 기쁨과 아름다움의 장소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믿는다.

나는 내부의 빛(inner light)을 믿는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daemon”이 그에게 요청한 의무로 만족스럽게 죽었다. 잔다르크는 그녀에게 온 천사의 메시지의 목소리에 복종함에 따라, 그녀가 사랑하였던 프랑스에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알았다면 저녁에 만족스럽게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터는 바깥에 있는 진리의 말과 일치하는 내부의 증언에 대해 말하였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나는 교회에 임재하는 권위의 목소리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분열(schism)에 의해 찢어지고 부숴지고, 이단들에 의해 고통 받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자주 약해지고 타협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나는 역사를 읽고 오늘날의 세계를 넓게 봄에 따라, 더욱더 교회를 믿게 된다.

우리는 선의의 인간, 모든 종교들의 인간과 종교가 전혀 없는 인간, 정의와 더 나은 사회질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인간을 본다. 어느 누가, 황제가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로마제국을 위해 감히 문제를 보고 증언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힘들더라도 진리의 증언을 찾아야 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비적 실체인 교회에 대해서이다.

나는 교회와 교회의 예언적 사명 그리고 교회의 빈번히 증명된 진리에 대한 희생적 증언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운명의 시간에, 군림이라는 낡은 방식으로부터 봉사와 희생의 정책으로 새롭게 나라를 이끌 말씀에 귀 기울인다. 그리하여 가장 위대한 교회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성경이 나를 사로잡았음을 고백해야겠다. 성경은 내 영혼의 인생을 지탱시켰고 먹여 왔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능력과 권위의 경이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비록 Huxley가 성경이 영적 사항들에 대한 인도서로서 어떤 진실한 것이 없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였지만, 진료를 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성경말씀(narrative)에서 정신병을 이해하고 어떤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데로 나를 이끈 확실한 단서를 발견해 왔다. 성경은 그 자체가, 나에게 나의 학습을 위해 쓰여진,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증거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서 나는 나를 낳추는 경외심으로 쓴다. 그 앞에 나는 머리를 숙인다. 그의 사랑이 나를 억제한다. 그는 나를 사랑하셨고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시었다. 예수님은 나를 매혹시키셨다. 그는 나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었고, 그의 숨은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 시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본 그리스도께서 보신 하나님, 그러나 어느 인간도 보았거나 볼 수 없는 하나님, 모든 형상들이나 언어들 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자신의 약속(promise), 신, 스스로 존재하는 이, 창조하시는 영, 사랑. 나는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2) 맥라렌의 의학철학

그의 방법

그는 자신의 글에서 흔히 “내 경험과 깊은 고찰을 근거로 생각하기에---”라는 문장을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종합하건데 그의 방법은 다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①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성찰, ② 당대의 과학, 의학, 그리고 수련시절 배운 신경정신의학, 비엔나연수를 통해 배운 정신분석학,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던 당대의 의과학과 정신의학 이론들, ③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과학사상 등 광범위한 독서와 배움, ④ 수많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

등. 이에 기초하여, 맥라렌은 그의 독특한 기독교적 과학관, 우주관, 인간관, 병과 건강, 그리고 정신의학에 대한 의학철학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 또는 신앙이 과학과 그 연구방법에 간섭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하였으나, 그는 최초의 창조(Creation)에 대해서는 과학이 아니라 신비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창조 후의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과학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모든 과학적 진리는 기독교적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과학관

맥라렌은 신앙인이었지만, 과학을 믿는다고 하였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진리이고, 과학은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학이란 자연(본성, 즉 로고스)에 대한 실험, 지적 입증, 설명, 그리고 통찰이며, 과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신념을 근거로, 자연 속에 있는 일정하고 지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질서 즉 logos를 밝히는 것이다.

그는 자연에 관한 세 가지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① 자연현상 또는 병 현상은 단절된 우연적 사건(happening)이 아니고, ② 자연은 불가사의하지 않으며, ③ 사람은 결코 무능하지 않아, 자연과 병을 연구하여 이해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

맥라렌은, 이성(과학적 사고)을 로고스(말씀)와 동일시하면서, 그 과학적 사고란, "자연이 본능인 이성"(reason with which Nature is instinct)이라고 할 때의 그 이성, 그리스철학자들이 명명했던 로고스, 또는 사도요한이 요한복음 제 1장에서 말했던 "말씀"(the Word)과 동일시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은 본능인 생존방법에 따라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자연 법칙에 따르는 것이며, 그 법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로고스인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biology)이란 생명(bio)이 작동하는 로고스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과학이란 어떤 영리해 보이는 지적 이론이 아니라, 신이 사물을 만드는 방법을 추구하고 또한 병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과학자란 우연으로 보이는 자연에 대해 이성적 질서가 깃들여 있음을 발견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정신의학자도 역시 비이성적 인간 행동에 대해 정확한 기술과 이성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특권을 가진 과학자라 하겠다.

그러한 자신의 연구방법의 틀로서, 헤겔철학과 과학수학의 대가였던 그의 형 Bruce McLaren이 "물질이란 형태를 취한 사고이며, 시간은 논리적 과정을 성육한다"(matter is thought that has taken form, and time incarnates a logical process)라는 견해를 채택하여, 사고, 형태 그리고 진화 간의 관련성을, 몸과 마음의 관계, 사람(뇌, 신체, 정신)과 자연(환경, 우주) 간의 관계에도 적용하였다. 즉 로고스가 진화의 과정 안에서 그리고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실현시켜 성육하게 될 때,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지고(우주의 먼지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성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이를 연구하는 과학도 탄생한다).

그에게는 질서, 이성 또는 로고스는 이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가 기독교적 진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과학적 능력과 과학을 탐구하는 열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다면, 확실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더 지속적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안에 과학의 기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과학탐구와 발견의 항해에서 인간이 항해를 출발하고 굽히지 않고 노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였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는, 인류는 충분히 유능하여, 이미 상당부분 과학과 의학과 신앙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왔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의학의 발달로 많은 병들이 의학에 의해 정복되고 있거

나, 대체로 치유되어가고 있으며, 이미 인류의 사망률은 반으로 줄었고, 평균 인간 수명은 10년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학의 발전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과학적 내지 의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이며, 이는 하나님이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는 명령을 수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을 금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으로 인식하자고 제안하였다.

3) 인간관

① 인간의 본성

맥라렌은 과학의 주 목적은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탐구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그의 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① 인간은 신의 형상(divine image)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인간은 물리적 및 생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동물만도 아니고, 사회적인 도덕적 존재만도 아니고, 영적 존재(spiritual being)이다. ② 인간 본성에는 내부의 빛(inner light)이 있다. 내부의 빛이란,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일어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진실로 그의 집이라고 아는, 진리와 기쁨과 아름다움의 장소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잔다르크는 그녀에게 온 천사의 메시지의 목소리에 복종함에 따라 그녀가 사랑하였던 프랑스에 자유를 가져다주었고, 공자는 “아침에 진리를 알았다면 저녁에 만족스럽게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③ 인간행동은 목적에 이끌린다. 맥라렌은 인간존재를 “expression of and expressing rationality and purpose”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는 우주의 진화나 인생에서 시작보다 최종결과(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인간에게 자유의지(free will)가 있으며, 이는 타고난 것이다.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은 진리를 따를 수도 있고, 또는 두려운 사실로서, 거짓을 택할 수도 있다. 그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한 결과 중 하나로서 질병을 예로 들었다. ⑤ 인간감정 중 가장 지배적인 것은, 프로이트의 성욕이나 아德勒의 열등감이 아니고, 죄의식이다. 그의 생각에는, 인간은 스스로 그리고 신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화, 보상, 선행, 금욕 등 기타 수천가지의 방법에 많은 정신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② 몸(물질)과 마음의 관계

정신과의사로서 맥라렌은 당연히 심신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당시까지 거론되고 있던 여러 심신관계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우선 행동의 에너지 보존 법칙 내지 기계론적 결정론을 반박한다. 그는 유물론이란, 우주는 닫힌 에너지 체계(closed energy system)로서 물리학적 결정론에 의해 사건이 생기며, 인간의 생각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보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마음 또는 의식이, 진화과정의 부산물(epiphenomena)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간이 담즙을 분비하듯이 뇌가 생각을 분비한다(mind secretion)는 이론에도 반대했다. 그는 생기론(vitalism)이, 생명체가 물리적 법칙을 변경시킨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였다. 그는 평행론(parallelism)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물질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도 물질에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주관적 유심론(subjective idealism)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명체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물리적 생리학적 법칙이 있어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호작용이론(interactionism)에 대해

서는, 신체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도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원론(dualism)은 맞지만, 몸과 마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맥라렌은 이 이론에도 반대하였다.

결국 심신관계에 대한 맥라렌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생리적 및 신경학적 사실을 인정한다. ② 유물주의 철학의 기계적 가설을 거부한다. ③ 이원론(dualism)의 형태이지만, 몸과 마음을 상호 관련없는 두 우주로 분리하지 않는다. ④ 그의 심신관계 이론은 현대 수학적 및 물리학의 통찰이 얻은 흥미있는 결과들과 잘 부합한다. 그러나 그는 1955년 현재까지는 인간은 물리현상과 정신현상 사이의 연결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② 마음과 물질-우주 간의 상호작용과 화해

맥라렌은 J.C. Eccles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학자에게는 “마음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가 궁극적이며 실제적 문제라고 하였다. 맥라렌은 현대 물리학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주를 이해하게 해주고,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밝혀준 것은 놀랍고 만족스러운 성취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 제시되는 바, 뇌가 microcosmos로서 macrocosmos인 우주의 한 뭉치이며, 궁극적으로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뇌가 우주 속에서 우주로부터 발달한다는 생각, 또한 뇌기능이 신경신호에 의해 나타나고, 우주를 비롯한 외부가 이 신경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그리고 당시 과학자인 Hutton이 “뇌는 전자계산기에서 사용되는 feedback system이 확대된 과정이다”라고 보는 견해, 등등에 대해서 동감했다. 그리고 한 synaptic pattern을 다른 pattern으로 바꾸는 물리적 에너지 변환이 의식의 변환과 대응하고, 또한 한 synaptic path를 열고 닫고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아주 작아, “생각” 단독으로도 그런 변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맥라렌은 이에 더하여 “의미”도 물질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뇌에 영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뇌가 마음과 에너지 사이를 연락(liaison)하는 기관이지만, 뇌가 에너지를 마음으로 바꾸거나 또는 마음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았다.

맥라렌은 정신의 힘이 물질에 작용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더 나아가 자유의지(free will) 개념까지 옹호하고 있다. 즉 신경전달에서 시냅스 이후의 반응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할 것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 환경적 요인 등 수 만 가지일 것이다. 만일 자유의지가 있다면, 반응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쪽으로 편중되어 나타날 것인데, 그는 실제 인생에서는 한 쪽으로 편중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신경전달과정에서는 반응이 기계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자유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현재 의학과 과학의 법칙과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맥라렌이 보기에, 우주의 한편에는 원초적 공허(primordial void)로부터 창조된 물질적 우주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무한한 영(말씀으로 물질이 존재하도록 요청한 그 영)이 있다. 그리고 별(지구)의 먼지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의간의식이 나왔는데, 그 의식은 하나님의 형상(image)에 따라 만들어진 의식이며, 따라서 신의 의식이다. 따라서 맥라렌은 환경, 뇌, 마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질서로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고, 물리-수학적 이론, 뇌의 생리학적 이론, 마음-뇌 상호작용이론 등이 모두 신의 창조이론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맥라렌은, 인간의 의식은 물질에 의해 통제 받으나, 물질을 통제할 수도 있으므로, 사람은 비록 그가 창조자는 아니지만, 그의 의식은 그의 목적에 따라 세상을 창의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하였다. 맥라렌은 기질적으로 잘못된 뇌를 물질적인 것만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다는 생

각이 미신이듯이, 정신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도 어리석다고 하며, 궁극적으로 "물질과 마음이 화해하는 것"이 신의 섭리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도 증명하기도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견해가 향후 과학의 발전에 따라 증명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마음과 물질 사이의 연결할 다리가 이직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다리의 개념을 건설할 틀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③ 인간의 영적 차원

맥라렌은, “물질은 사고가 형태를 취한 것”이라는 개념을, 물질과 영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건전한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유기체의 세계도 “살아있는 형태를 가진 사고”로 생각하였다. 즉 유기체가 만들어 진 그 과정에 의해 동물세계가 만들어 졌고, 그 생물학적 과정의 최종적 승리로서 창조적 진화의 elan vital은 사람을 출현케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란, 자연 내의 한 독특한 방법으로 의식과 자의적 사고가 스스로 살아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는 인간을 “생각을 생각하는 살아있는 생각”(living thought thinking thought)으로 묘사하였다.

맥라렌은 하나님께서 영혼 뿐 아니라 영혼의 표현(manifestaton)을 거의 대부분 결정하는 육체도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도 영혼만큼 신성하다고 하였다. 맥라렌이 보기에는, 인간의 신체는 하나의 도구로서, 영인 우리가 우리에게 의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의미를 자각하고, 기억을 유지하고, 목적을 성취케 하는 도구이다.

그는 뇌기능에 대해서도 영적 차원에서 보았는데, 뇌는 목적(생존)을 달성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동시에 사고의 도구, 용기를 위한 도구, 옳고 그름에 대한 도구, 그리고 고통을 순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물질적 뇌도 물질적 우주의 한 부분으로, 대우주가 투영된 소우주이며, 뇌 세포의 물리적 변화는, 모든 물리학적 법칙에 따라, 모든 물질적 우주와 감응하여 진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로고스는 육신이 되었고, 몸과 마음은 모두 로고스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로고스를 따르는 우주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맥라렌에게는 사람의 몸과 정신, 그리고 자연과 우주가 모두 물질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이기도 하므로, 인간을 “실제적인 물질적-영적 우주 안에 있는 신체-정신 연속체”(body-mind continuum within an actual materio-spiritual cosmos)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우주로부터 온, “의미가 부하된 물질적 자극이, 의미있게 균형잡혀 있는 유기체에 부딪쳐, 신체에 변화와 적절한 의식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meaning charged material stimuli from this cosmos impinge on a meaningfully poised organism and effect alterations of body and appropriate conscious adjustment)고 하였다.

맥라렌은 이 모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인격은 몸과 마음의 음악이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음악 중의 일부이며, 그 음악 속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는 큰 희망을 주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생명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물질적 및 영적 도움으로 간섭하는 힘(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 희망의 경험은 성장과 성취를 가져다준다.

4) 그의 의학관

① 의사의 사명

맥라렌은 직업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이름은 “의사”라는 이름이라고 하였다. 목사가 매우 특별한 인간 영혼을 돌보는 것에 헌신해야 하듯이, 교육자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해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의사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겸손한 직무, 즉 육신의 병을 다루고, 자연과학 서적들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건강과 질병에 있어 “신체”(physic)와 “자연”(nature)에 정통한 사람이다. 또한 의사는 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하지만 철학적 이해도 가져야 하며, 특히 정신의학에서 그러하다고 하였다. 필자는 그가 말한 철학을 인문학(humanity study), 즉 문학, 역사, 철학, 예술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그는, 정신과의사는 악, 증오, 탐욕, 공포가 의인화된 것처럼 몸과 마음에 파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주 인간의 피조물적 실패와 미천한 기원의 증거를 본다고 하였다. 그 인간의 미천함의 증거는 맥라렌에게는 정신병이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모든 물질적 및 영적 자원을 동원하여 뇌와 마음의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의 자질

맥라렌은 Stawell 기념강연에서, Stawell교수에 빗대어, 의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① 의사는 자연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② 의사는 물리학과 자연에 정통해야 한다. 그가 보는 자연과학과 의학은 어떤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원자물리학자인) Ruthford가 말한 바 “신이 사물을 만든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③ 의사는 일해야 한다. ④ 의사는 인생과 결합된 진리와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⑤ 의사는 열정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즉 의사는 자신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이 있어야 한다. ⑥ 의사는 진단 및 감별진단에 예리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 영혼의 문제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⑦ 의사는 신비한 그 무엇, 치유의 손길을 가져야 한다. 이는 occultism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다. ⑧ 의사는 철학자이어야 한다. 맥라렌은 Plato의 말로 덧붙이기를, “철학자는 실질적(practical)인 것으로 신뢰받아야 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에 대해 평 잡는 매라고 비유한다)

② 건강의 원리

그는 은사 Stawell을 기념하는 강연에서, 건강의 원리는 바로 Stawell 교수 자신의 인생과 성품에 쓰여진 바와 같다고 하였다. 즉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rapport), 끈질기게 노력하는 삶, 용기와 진지함, 동정과 열정(사랑), 판단과 선택의 분별력, 밖을 향해 도움을 베푸는 것(outgoing helpfulness), 지혜에 대한 사랑 등, 이 모든 것에 건강의 길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 음식, 보호덮개(집), 공기와 햇빛, 청결, 운동과 휴식의 적절한 교대. 그리고 성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모두는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 동물은 자연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대체로 그 원칙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힘은 질서의 힘이며, 그 질서의 힘은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③ 질병의 발생

맥라렌은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환경은 원래 물리적이며 합리적 질서로 되어 있고 동시에 영적이기도 하다. 맥라렌이 보기에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현재 이병률은 감소하고 있고, 수명은 연장되고 있다. 즉 인류사회는 자연연구에서 대단한 발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이미 인간이 만든 문명과 과학의 발전은 원래는 실은 옳은 것으로, 인간의 건강에 잘 맞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현대에 이룰수록 자연환경을 떠났고, 반면 산업적 문명과 인본주의 문명에 압도되고 있다 하였다. 문명이 흔히 자연환경을 병들게 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동성(vitality)에 손상을 가한다는 것이다.

정신과의사로서 맥라렌은 문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라 하였다. 맥라렌은,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만든 이성에 의해 진정한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왜곡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정신병을 인류문명이 스스로 키워낸 산물로 보고, 우리 문명까지 파괴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정신병을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 결과 인류의 길에 출현한 무자비한 요괴라고 불렀는데, 그는 이 현상을 버트란드 러셀이 말한 "선과 악에 대해 눈이 먼, 파괴의 무모함으로, 전능의 물질이 무자비하게 굴러간다"는 표현에 비유하고 있다. 특히 조발성치매(정신분열병, 조현병)에 대해서는 뇌세포가 파괴된 결과로 나타남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뇌세포파괴 결과 이성이 마비되고 그의 영혼이 끌어내려져 있는 상태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할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C.G. Jung의 견해, 즉 정신장애의 발생원인은 신앙의 상실이라는 견해에 동의를 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명령받은 의무에 응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스스로 악을 선택함으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호주에 새롭게 진행마비(매독 후유증)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정부에 의해 남아프리카 전쟁에 보내진 군인들 때문인데, 이는 그들을 매독균에 노출되도록 인도한 국가사회의 비도덕적 결정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한국과 호주에서 질병에 따라 발병빈도(역학)가 다른 것을 관찰하고, 어떤 사회에 어떤 특정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가 그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 동맥경화증은 적고, 현미를 많이 먹어 각기병도 없었는데, 이는 한국인들은 그러하기로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반면 호주에는 매독, 임질, 결핵, 동맥경화, 알콜중독은 갖기로 해서 많고, 대신 나병, 이질, 콜레라, 등은 갖지 않기로 해서 적다고 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 "갖기로 했다"는 말에는 특정 질병의 발생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어떤 도덕성이나 사회악 같은 종교적 내지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이런 견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GBTQ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본다)

신경증("노이로제") 또는 신경쇠약에 대해서는, 맥라렌은 Freud의 성적 갈등이라기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욕망, 돈, 명예, 죄의식,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식민지 지배에 의한 고통 등 인간의 삶과 사회에 관련된 갈등과 불안, 나아가 "감정"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필자가 보기에, 맥라렌은 불신앙, 유물사상, 개인과 환경(사회)간의 비적응(부조화), 정신장애, 인류에의 위협, 등은 모두 원인과 결과로서 상호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④ 육체 질병의 치유의 기독교적 의미

맥라렌이 보기에, 의사는 좋은 사마리아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혼만큼 신성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의사에게는 사람의 육체의 고통을 줄이는 것은 그의 영혼구원 만큼 중요하다고 단언한다. 즉 과학연구와 마찬가지로 의학 자체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와 영의 치유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였고, 실제로 육체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아드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압박해 오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하거나 그런 일에 소홀하다면 이상하지 않은가고 반문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데, 우울증 환자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고 묻고 있다. 또한 맥라렌에게는,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이성애 눈이 멀어져 영혼이 끌어내려져 있는 조발성치매(정신분열병, 지금은 조현병)를 앓는 환자에 대한 돌봄과 치료도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정신과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⑤ 치유의 길

맥라렌은 치유의 길은, 즉 삶을 위한 진리는, 이미 인간의 삶 속에, 과학 속에, 성자와 현인들의 지혜 속에, 예술가와 시인들의 표현 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이를 믿고 찾아가 하는 것이다. 그는 William James 교수가 말한 “will to believe”라는 말의 의미에서 인간의 실제적 자유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본성에는 진리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는 신앙의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어붙은 강을 보며 건너갈 것인가 말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얼음의 두껍다거나 얇다는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꺼움과 얇음에 대한 개인의 믿음에 의해 선택된다.”

그는 영적인 것의 반대는 물질이 아니라 악이며, 그 치료는 말 그대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정신병을 사회의 위협으로 보고, 우리는 현대에서 이를 멈추게 하는 방안을 발견할 수 없는가? 맥라렌 자신은 Jung의 견해와 같이 신앙상실의 과정이 정신의 무력화 과정임을 확신하고, 환자에게 신앙을 심어줌으로, 즉 spiritual remedy로 치료하려고 하였다. 당연히 그는 의학적 치료와 기독교적 신앙에 의한 치료(영적 치료)와 통합하여 환자에게 베풀 결과, 많은 환자에서 당시의 의학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증례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현대 과학도 필요하지만, “옛 방법”, 즉 진실하고 높은 이상과 자유의지라는 dynamic force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좋은 의료장비는 더 위대한 믿음과 소망(희망)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이성, 신앙 그리고 희망을 연결하는 어떤 물리화학적 자극을 발견하는 것 역시 미래 정신의학의 과제라 하였다.

맥라렌은 주장하기를, 기독교인 의사와 교회는 병을 해석하고 치유함을 보여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기독교인 의사는 이 사명을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성육신된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사역을 본받아 환자를 치료하면 치유의 기적은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다.

기적

사람들은 신앙에 의한 치유를 “기적”과도 같다고 생각하지만, 맥라렌에게는 질병치유의 기적은 당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맥라렌은 긴 논증을 통해 기도의 직접적 응답인 기적적인 치유는 존재하며 결코 과학 내지 의학과 상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기적의 증거에 대해 반응의 동일성(uniformity of response)이라는 개념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즉 자연과 물질적 우주를 오직 그 한 분(One), 하나님의 마음과 품성의 표현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질서정연하고 변함없다는 것이다. 즉 근대의학이 성취한 많은 질병의 치료는 오랜동안 기독교인들이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결과이며, “기도의 직접적 응답”이라고 보았다.

X. 맺는 말

맥라렌은 기독교 선교사로서, 한국인을 사랑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한국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교육시켰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그의 독특한 의학철학과 인도주의 사상을 제시하고 실천한 의사였다. 그는 열정적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전하고, 열정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열정적으로 영적 의학을 추구하였다. 그에게 신사참배 반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필자 생각에, 맥라렌은 슈바이처와 대조된다.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선교사, 같은 의사, 그리고 다같이 미지의 땅에서 봉사하였다. 그러나 슈바이처와 달리, 맥라렌은 사상적으로는 보수적 신앙을 견지하였다. 그는 동양사상에 대해 존경했으나, 슈바이처와 달리 이를 자신의 신앙과 혼합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자와 맹자의 위대한 가르침이, 내가 가진 보잘 것 없는 지식에 그리고 내가 치료 도중 곤란함에 빠질 경우, 때때로 내게 길을 비춰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거듭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후학을 교육시켰고, 세브란스 정신과에 후계자를 남겼다. 이 점이 경성제국대학 의학과와 다른 점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가르침은 세브란스 내에서 체계적으로 계승되지 못하였다. 그의 제자 이중철교수는 일제 말 스승의 길을 따라 학교를 떠났다. 세브란스 신경정신과는 문을 닫았다. 그러나 현재 소수이지만 그의 제자들의 후예들이 맥라렌교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의학에는 다양한 첨단 이론과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으나, 그가 몸소 보여준 바, 일정하고 견고한 의학철학에 기초하고, 열정적이고 진지한 기독교적 태도와 신앙을 견지하면서, 환자를 돌보라는 가르침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끝으로 한가지 제언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주에 과거 배돈병원이 기여한 바를 우리가 잊지 않게 기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Bibliography

Books

- McLaren CI. The Great Experiment. Australasian Student Christian Union, 1910
McLaren CI. An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Mind. article no. 51, Research Department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1928 (Australasian Journal of Psychology and Philosophy, 1928 에 실린 것)

McLaren CI. Preface to Peace with Japan. Melbourne, Marshall, Morgan & Scott LTD, 1943.
 McLaren CI. Eleven weeks in a Japanese Police Cell. Melbourne, Brown Prior Anderson Pty, Ltd. 1943.
 McLaren CI. They Kept the Faith. Shining lights from Korea. Melbourne, Spectator Publishing Co; 1946.
 McLaren, CI, et al. Other Men Laboured: Fifty Years with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in Australia 1896-1946. Melbourne: Australian Student Christian Movement, 1946.
 McLaren CI. The Christian faith and Australia's immigration policy. Melbourne : Spectator Publishing Co, 1949

논문

Australasian Collegian

McLaren CI. Manifesto from Australasian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to the churches of Australasia. Australasian Intercollegian 1910:April:19-21.
 McLaren CI. The method of individual approach in Christian work. (an address delivered at the Blackheath Leaders' Conference). Australasian Intercollegian, 1912:February:180-183
 McLaren CI. A Christian Conce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asian Intercollegian 1917:September:146-153.
 McLaren CL. Christianity and Disease. The Australian Intercollegian 1944:November:104-106.
 McLaren, CI, et al. Other Men Laboured: Fifty Years with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in Australia 1896 -1946. Melbourne: Australian Student Christian Movement, 1946.

Korean Mission Field

McLaren CI. The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healing of the body and the healing of the soul. The Korean Mission Field 1914:10(7): 211-212.
 McLaren CI. Thoughts on the miraculous. The Korean Mission Field 1916:12(1):9-15.
 McLaren CI. Our medical work. The Korean Mission Field 1921:17(2):29-30.
 McLaren CI. The problem of insan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The Korean Mission Field 1922:18(7):138-140.
 McLaren CI. The first Korean women's summer conference. The Korean Mission Field 1922:18(9):201-203.
 McLaren CI. The Korean women's new day. The Korean Mission Field 1923:19(11):236-239.
 McLaren CI. Christian education! Quo vadis? The Korean Mission Field 1924:20(4):69-73.
 McLaren CI. The work of the social service committee. The Korean Mission Field 1925:21(5):108-112.
 McLaren CI. Proposed rescue home in Seoul. The Korean Mission Field 1926:22:133.
 McLaren CI. Saturday morning in a mission hospital. The Korean Mission Field 1932:28(3):45-49. (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의 Foreign Mission Department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McLaren CI. My beliefs. Korean Mission Field 1932:28(4):75-77.
 McLaren CI. What the detective told me. Korean Mission Field 1932:28(?):121-122.
 McLaren CI. Social service work under federal council. The Korean Mission Field 1932:28(7):114-116.
 McLaren CI. Laws of the spirit of life. Korean Mission Field 1933:29:220-222.
 McLaren CI. Some Medical and Scientific Implication. Korean Mission Field 1934:30(3):53-58.
 McLaren CI. The church and social service. The Korean Mission Field 1939:35(3):45-47.
 McLaren CI. Care of insane. Korean Mission Field 1939:35(6):367-368.
 McLaren CI.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reform. The Korean Mission Field

Chinese Medical Journal

McLaren CI. Report of the Department of Neurology and Psychiatry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Chinese Medical Journal 1931:45(11):1058-1067.
 McLaren CI. The Psychopathic and the Physicopathic Incidence of Disease. (based on a contribution at the First Conference of the Chinese Medical Association, Shanghai, October) Chinese Medical Journal 1932:46(10):158-164.

McLaren CI. Things Both New and Old in Psychological Medicine (article 107). Chinese Medical Journal, 1932;46(17): 913-926/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McLaren CI. An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treatment of the psychoneurosis and the psychoses. Beattie Smith Lecture 1.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36;23(20):665-670.

McLaren CI. An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treatment of the psychoneurosis and the psychoses. Beattie Smith Lecture 2.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36;23(21):697-706.

McLaren CI. Australian medical works in Korea.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40;27(5):624-628.

McLaren CI. The Principle of Health. The Sir Richard Stawell Oration,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41;28(2):689-694.

MMcLaren CI. The fellowship of Christian healing.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54;41(6):919-920.

McLaren CI. Brain and Mind.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955;42(1):562-563.

Other Journals

McLaren CI. An Hypothesi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dy and the mind. The Philosophical Review, 1929;38(2):197-200.

McLaren CI. The pagan state and the Christian church in Japa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1943;May:16-25

보고서

McLaren CI. Annual report. Chinju, Korea, 1921.

McLaren CI. Christianity, Communism and the World Situation. Chairman-editor of a Presbyterian report on communism and the church, 1952.

기타

Toward the goal of peace in Korea

Personal Diary

참고문헌

전기

New EW. A Doctor in Korea. Sydney 1958.

민성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맥라렌교수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논문

민성길: 맥라렌 교수(1): 그의 생애와 의학철학. 신경정신의학 2011;50:172-186

민성길: 맥라렌 교수(2): 그의 영성 정신의학 이론. 신경정신의학 2012;51:25-35.

여인석. 세브란스 정신과의 설립과정과 인도주의적 치료전통의 형성- 맥라렌과 이중철의 활동을 중심으로. 의사학 2008;17:57-74

이봉은. 나의 은사 맥라렌교수. 연세의대 의료원소식 1987년8월17일

이상규. 마라연(馬羅連). 서부경남지방과 세브란스에서 일한 호주장로교 의료선교사의 삶의 여정. 한국교회사학연구원 강연. 2008년 5월 8일.

McLaren CI. Notes on my brief trip to Vienna, 세브란스 교우회보 1929;12:64.

Min SK, Yeo IS. Mental Health in Korea: Past and Present. In H. Minas and M. Lewis (ed). Mental Health in Asia and the Pacific. Historical and Cultrural perspective.Springer, 2017. Pp. 79-92.

Gosling A: Jessie's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October 2007.

Gosling A: Jessie McLaren. An Australian in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News. 2024. 9. 20. 유나이티드문화재단

03

미국남장로교회의 의료선교

미국남장로교의 의료선교

이상규
(백석대학교)

시작하면서

1884년 이래 시작된 외국 선교부의 한국선교는 한국사회 제반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에 홍익섭은 기독교의 한국 전파는 ‘한국 근대사의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외국 선교 단체는 일반적으로 3가지 영역, 곧 1) 개척전도와 교회 설립, 2) 학교설립과 교육활동, 3) 병원의 설립과 의료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의료활동은 한국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되기 이전의 한국에서의 의료실태는 경험적 의술의 일종인 한의학 외에는 비과학적 샤마니즘과 관련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 근대적 의료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 서양 의술(Western medicine)과 접촉하게 되었고, 기독교의 선교병원은 한국에서의 서양의학의 수용과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1884년 알렌(H. G. Allen) 의사의 입국 이후 해방 이전까지 350여 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서울을 비롯한 평양, 선천, 원산, 강계, 부산, 대구, 진주, 전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활동했는데, 이 글에서는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선교와 의료활동에 대해 정리해 두고자 한다. 해방 이후의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후론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1892년의 남장로교의 한국선교 시작부터 신사참배 강요 등 일제의 강압에 의해 학교와 병원시설을 폐쇄하고 선교사역을 중단하게 되는 1941년까지로 한정했다. 이 기간동안의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5개 선교지부에서의 의료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이와같은 의료활동이 한국사회, 특히 호남지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1. 미국남장로교의 한국선교

1861년 조직된 미국의 남장로교회(PCUS)⁷⁹⁾의 한국선교는 북장로교 보다 8년 늦은 1892년 시작되었다. 1885년 4월 내한하여 한국에서 활동하던 언더우드는 1889년 3월 14일, 8년 연상의 여의사 릴리아스 홀튼(Dr Liliias Horton)과 혼인하였고, 1891년 4월에는 안식년을 맞아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부터 1893년 2월까지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그는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선교 동원을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1891년 10월 테네시주 내슈빌(Nashville)에 소재한 벤터빌트대학에서 개최된 제12회 해외선교를 위한 신학생

79) 미국에 장로교가 소개된 후 첫 노회인 필라델피아노회(1706)가 조직되고, 뉴잉글랜드장로교대회(1716)로 발전했다. 그런데 부흥(운동)에 대한 견해차로 1741년 부흥운동에 냉담한 구파(Old side)와 부흥운동을 지지하는 신파(New side)로 분열되었다. 이후 미국장로교(1758)로 통합되어 1789년 장로교총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회중교회와의 연합전 때문에 1837년 연합을 반대하는 구학파(Old school)와 지지하는 신파(New school)로 다시 분열된다. 그러다가 노예해방 문제로 다시 내분이 일어나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이들이 기존 장로교회에서 분리되어 1861년 미국남장로교(PCUS)를 조직했다. 노예해방을 지지하는 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로 불리게 된다. 북장로교회는 1958년에 북미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와 합쳐 미국연합장로교회(UPC: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되었다. 1983년에는 미국남장로교회가 미연합장로교회(UPC)와 통합되어 지금은 미국장로교회(PCUSA)로 발전했다. 이때 통합을 반대하는 미국남장로교회 소속 교회는 연합장로교회와의 통합을 거부하고 미국장로교회(PCA)로 분리되었다.

연맹(Inter-Seminary Alliance for Foreign Missions) 선교대회에 한국인 윤치호(尹致昊, 1865-1945)와 함께 참석하여 한국 선교를 호소하였다. 에모리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윤치호는 남장로교회 신자로서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자 신학을 공부한 첫 한국인이었다. 그도 언더우드와 도와 강연을 통해 한국 선교의 긴박성을 호소하였다.



이때의 강연이 영향을 주어, 남장로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강연회에 참석했던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테이트(Lewis B. Tate), 전킨(William M. Junkin), 존슨(Cameroon Johnson)이 한국 선교를 결심하였고, 후에 테이트의 여동생 테이트(Mattie S. Tate)와 데이비스(Linnie Davis) 양이 한국 선교에 동참하기로 했다. 레이놀즈의 부인(Patsy Bolling)과 전킨의 부인(Mary Leyburn)도 남편과 뜻을 같이 하게 된다. 처음에 결심했던 존슨은 한국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이놀즈 부부와 전킨 부부, 맥코믹신학교 출신인 루이스 테이트(Lewis Boyd Tate)와 그의 여동생 메티 테이트(Mattie Tate),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Linnie Davis) 등 7 선교사들은 1892년 10월 17일(Linnie Davis)과 11월 4일 내한하여 미국남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개척자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7인의 선발대'라고 불리게 된다. 이들 첫 남장로교 선교사 중 테이트 남매는 미주리주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6인은 버지니아 출신이었다.

이렇게 되어 미국남장로교회는 1867년 중국에 엘리야스 인슬리 목사(Rev Elias B. Inslee) 파송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콜롬비아, 브라질(1869), 멕시코(1874), 일본(1885), 콩고(1891)에 이어 1892년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로부터 1945년 이전까지 172명을, 해방 후 1983년까지 215명, 곧 387명을 파송하게 된다.⁸⁰⁾

80)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239-25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펴낸 『내한선교사사전』

중국에서 일한 첫 미국인 의료선교사는 피터 파커(Dr Peter Parker)였는데 그는 1834년 중국 광둥으로 파송되어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의과대학을 설립하였고 후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했다.⁸¹⁾ 미국남장로교의 의료선교는 1880년 이후 시작되었는데, 로버트 피셔번(Dr Robert Baxter Fishburn, MD)을 중국에, 의사이자 목사인 월튼 그레이빌(Rev Walton Graybill, MD)을 멕시코에 파송하였고, 1890년대 한국에 의료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2. 남장로교의 의료활동

1892년의 7인의 입국에 이어, 1893년 유진 벨(Eugene Bell) 목사 부부, 두류 의사(A. D. Drew, MD)에 이어, 1894년 윌리엄 해리슨(William Harrison) 목사, 1895년 잉골드(Miss Mattie Ingold, MD) 의사, 1897년 오웬(Rev Clement Owen, MD) 의사 등이 입국하게 되자 전주지부(1896)와 군산지부(1896)를 시작으로 목포(1898), 광주(1904), 그리고 순천지부(1913)를 설치하고 호남지방 전역에서 사역하게 된다. 각 선교부는 전도와 교육활동과 더불어 시약 소나 진료소 설치 등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는데, 1903년, 그리고 1910년까지는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적이었다. 목포는 1900년 이후, 군산은 1901년 이후 의료사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전주의 경우 잉골드 의사가 혼자 의료사업을 계속했으나 1904년 안식년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자 1904년 초에는 남장로교의 의료사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⁸²⁾ 그러다가 1904년 8월 군산에 다니엘(Thomas Henry Daniel), 전주에 포사이드(Wiley H Forsythe), 목포에 놀란(Joseph Wynne Nolan) 의사가 부임하여 의료사업이 새롭게 출발했다. 1905년에는 로버트 윌슨(Robert Manson Wilson, 禹越遜) 의사가 광주에 부임하여 의료진이 보강되었으나 의사들의 과로와 질병, 그리고 잦은 이동으로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10년 이후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남장로교의 첫 의료선교사는 1893년에 내한한 데머 드류(Dr A. Damer Drew)였고, 두 번째는 1895년에 입국한 여의사 매티 잉골드(Dr Mattie Ingold), 세 번째는 1897년에 입국한 목사이기도 했던 클레멘트 오웬(Dr Clement C. Owen)이었다. 이때부터 1983년까지 80명의 의료 선교사가 내한했는데, 이는 전체 선교사의 21%에 해당한다.⁸³⁾ 해방 전으로 한정할 경우 39명의 의료선교사가 내한했는데, 의사 21명(여의사 2명), 간호사 17명, 치과의사 1명이었다(의료선교사 명단 참조).⁸⁴⁾ 이들은 해방 이전 내한 선교사 172명의 22.7%에 해당한다. 이제 선교지부 별로 의료활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에서는 1884년 이후 1985년까지 내한한 미국남장로교선교사는 448명으로 산정하고 있다(6쪽).

81) 피터 파커에 대한 기본 정보는, 조너던 스펜스, 『근대중국의 서양인 고문들』(서울: 이산, 2009), 51-78쪽에 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1884년 한국에 온 안렌은 1834년 중국 광둥으로 갔던 피터 파커를 모델로 사역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82)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205.

83) 선교사 부인을 제외한 내한 선교사(1892-1983) 수는 288명에 달하는데, 이럴 경우 의료선교사 80명은 전체 선교사의 28%에 달한다. 이 80명 중, 의사는 34명, 간호사 36명, 치과의사 2명, 의료기사 3명, 병원행정가 4명, 기타 1명(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이었다. 소피 모고메리 크레인(정병준 역), 『기억해야 할 유산』(CTS, 2011), 20, 38.

84) 크레인은 해방 이전 내한한 39명의 의료선교사 가운데, 의사 22명, 간호사 16명, 치과의사 1명이었다고 말한다. 크레인, 24. 송현강은 해방 이전까지 내한한 의료선교사는 49명(의사 30명, 간호사 19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송현강, “미국남장로교의 전북지역의료선교(1896-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35(2011. 9), 48.

1) 전주지부(1896)

레이놀즈(李訥瑞)가 1893년 자신의 조사 정해원을 파송하여 전주성 외곽에 초가 한 채를 구입하여 선교사역을 시작하려 했으나 제반 사정으로 잠시 보류했는데, 1895년 12월 말 테이트 목사 남매가 전주로 이주함으로써 1896년 전주지부가 개척되었다. 전주지부의 관할 지역은 전주 일대와 완주, 삼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등지였다. 1896년 2월에 내한한 해리슨(William Butler Harrison, 河緯廉)이 전주로 배속되었고, 1897년에는 의료선교사 잉골드가 전주로 왔다. 1897년 7월 17일에는 이곳에서 최초의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남자 2명과 부인 3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중 한 사람이 김창국이었다. 그가 전주 최초의 세례교인이라 할 수 있다.⁸⁵⁾ 해리슨 목사는 1901년 김창국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1908년 전주 신흥학교(New Dawn)로 발전했고,⁸⁶⁾ 테이트(Mattie S. Tate, 최마태) 선교사는 1902년 12명의 소녀들을 자기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전여학교로 발전했다. 이 학교는 전킨을 기념하여 영문으로는 전킨기념학교(Junkin Memorial School)로 불렸다.

전주 야소병원

전주에서 의료 사역은 해리스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1년간 의학을 공부한바 있는 그는 선교지의 필요 때문에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897년 5월 14일부터 몇 달 동안 370여 환자들로부터 550여 차례 진료요청을 받았다고 한다.⁸⁷⁾ 그러나 실제적인 의료활동은 1895년 두 번째 의료 선교사로 내한한 매티 잉골드 의사(Dr. Mattie Ingold, 1867-1962)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897년 11월 전주로 이동하여 완산에서 한옥을 개조하여 진료소(medical dispensary)를 열었는데, 이것이 이 지방 선교병원인 전주 야소병원으로 발전하였다. 북캐롤라이나주 트리니티(하이포인트 인근)에 있는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의 교수였던 이사야 잉골드의 여섯 자녀 중 막내로 출생한 매티 잉골드는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켄터키의 루이빌병원에서 잠시 훈련을 받고 1897년 요코하마(8. 26), 부산(9. 10)을 거쳐 재물포로 입항하였다(9. 15). 이후 군산(10. 18)을 거쳐 11월 3일 전주로 이동하였다. 당시 전주의 인구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주에 도착한 잉골드는 1898년 11월 3일 전주에서 부녀진료소를 개설했는데,⁸⁸⁾ 개설 첫날에는 6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첫 달에 약 1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첫 5개월 동안 4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한다.⁸⁹⁾ 1902년 10월 테이트(Lewis B. Tate, 崔義德)의 수고로 화산동 새 선교부지에 의무실을 위한 첫 번째 건물이 건축되었고, 1903년에는 1,5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한다.⁹⁰⁾ 그러나 남자 의사가 없어 남성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1904년 8월 10일 포사이드 의사(Dr Wylie Hamilton Forsythe, MD)가 잉골드의 사역을 돕기 위해

85) 그는 전주 신흥학교 최초의 학생이었고 평양 송실을 거쳐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고 1915년 목사가 되었다. 제주도 선교사를 거쳐 전주 양림교회 목사로 평생 봉직했다. 그의 차남이 김현승 시인이다.

86) *The Missionary* (Feb., 1902), 69-70.

87) 송현강, 54.

88) 예수병원은 매티 잉골드가 전주에 도착한 1897년을 병원설립일로 기념해 왔으나 실제로 첫 진료소가 개시되었을 때는 1898년 11월 3일이었다. 설대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 (예수병원, 2007), 29.

89) G. T. Brown, *Mission to Korea* (영인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84), 41.

90) 설대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예수병원, 2007), 31, Brown, 41.

전주로 왔으나 왕진을 다녀오던 중 1905년 3월 강도를 만나 귀가 찢리는 등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1906년 봄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전주에서의 사역이 길지 못했다. 1909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목포지부로 배속되었다.

여의사 잉골드는 1905년 9월에는 테이트 목사와 혼인하였고 이 부부는 진주지부를 이끄는 주축이 되었다. 1907년에는 간호사 에밀리 코델(Miss Emily Cordell, RN)이 부임하여 1910년까지 3년간 일했다. 전주에서 일한 의료선교사들로는 잉골드(1897-1908. 6), 포사이드(1904-5), 버드맨(Ferdinand Henry Birdman, 1908-9), 다니엘(Thomas Henry Daniel, 1909-1915) 등이었다. 다니엘 의사는 이 병원을 안정된 병원으로 육성했는데, 1912년 9월 25일에는 30개 병상의 지하 및 2층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맥코웬기념병원’이라고 불렀다. 루이지애나 잭슨의 맥코웬(W. R. McCowen) 가족이 건축비 약 1만 달러를 기부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다니엘 의사도 과로로 건강을 해쳐 1915년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전주지부에서 일한 의료진으로는 로벗슨(Dr Moorman Owen Robertson, 1916-1921), 헨리 티몬슨(Henry Loyola Timmons, 1912-1913, 1922-1925), 로이드 보그스(Lloyd Kennedy Boggs, 1925-1940) 등이었다. 보그스(박수로)가 원장으로 있던 기간에 이 병원이 ‘예수병원’으로 개칭되었다. 간호사 에셀 케슬러(Miss Ethel Esther Kestler, 1912-1940)는 1905년부터 1912년까지 군산에서 일하고 1912년 전주로 와 1940년까지 28년간 봉사했다.

1935년 1월 9일에는 전기배선 혹은 보일러 연통의 발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1912년에 건축했던 병원 건물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보험금 외에도 한국인들의 후원으로 45개 병상의 새로운 병원을 신축했다. 그래서 1936년 봄 다시 병원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40년 일제의 탄압이 심화 되었고, 선교병원에도 신도(神道)의식을 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참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선교부는 이를 거부하고 병원 폐쇄를 선택했다.⁹¹⁾ 보그스는 전주예수병원의 마지막 원장이었다. 그도 다른 남장로교 선교사 50여명과 함께 1940년 11월 미국 정부가 제공한 마리포사 호(S. S. Mariposa)로 한국을 떠났다.

해방 후 전주예수병원은 1948년 4월, 폴 크레인(Paul S. Crane, MD. 구바울) 선교사에 의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군산지부

군산은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1890년대 상황에서 목포나 공주 등 서해안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항구도시였다. 따라서 이곳에 선교지부를 설치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부는 이곳에 선교지부를 열 개 된 것이다. 군산지부는 전킨과 드류 선교사가 정, 그리고 데이비스(L. F. Davis)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킨은 복음전도와 교육을, 드류는 의료사역을, 데이비스는 여성과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1896년 4월 이곳에 온 이들은 선창가 한옥을 구입하여 거주지로 삼고 이곳에서 전도를 시작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장로 선교부는 전라북도에 두 곳에 선교지부를 설치할 수 없다 하여 나주에 선교지부를 설치할 의도로 군산선교부는 잠정적으로 폐쇄하였다. 그러나 나주선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군산 선교부를 재개설하였다. 군산선교부는 군산, 장항, 강경에 이르는 강변 지역과 옥구, 대야, 김제, 부안 지방을 관장하였고, 후에는 서천, 한산, 부여에 이르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까지 담당했다. 전킨 목사 부부는 1902년부터 남녀 아동들을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남자학교는 영명학교로, 여자학교는 멜본딘(Mary Baldwin) 학교로

91) Brown, 157-161.

발전했다.

군산 야소병원

이곳에서 의료선교는 1896년 6월은 데머 드류 의사(Dr Alessandro Damer Drew, 1859-1926)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미국남장로교회 선교부의 첫 번째 의료사업이었다.⁹²⁾ 그는 탁월한 의사이자 전도자였다. 그가 자신의 거주지에 진료소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군산야소병원의 시작이었다. 1896년 한 해 동안 2,700건의 진료, 간단한 외과 수술의 경우 600건에 달했다고 한다.⁹³⁾ 첫 2년 동안 진료한 환자는 4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는 진료실에서 사역 외에도 순회 진료를 시작하였고 선교용 선박(mission vessel)을 구입하여 해변과 섬지방을 다니며 순회전도와 진료를 병행하였다.

1898년 10월에는 군산항 인근에 있던 선교부를 약 5Km 떨어진 구암으로 확장 이전하였고, 개척전도와 교회 설립에도 기여하였다. 이 일로 건강을 잃은 그는 1901년 미국으로 돌아가 의료사역을 잠시 중단되었다. 그의 체한 기간은 7년에 불과했으나 군산 야소병원의 기초를 놓았고, 군산과 익산, 김제, 옥구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였다. 귀국 후에는, 최은수 연구에 의하면, 도산 안창호와 그 부인 이해련 여사의 미국 정착을 돕고, 재미 독립 애국지사들의 독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다고 한다. 한국 지리 역사 정보에 탁월한 지식을 소유했던 그는 한국문화에 기독교 관련 문서와 유물을 수집했는데, 이를 영국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그는 생애 말년에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1년 계약의 월세 집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기를 원했으나 1926년 12월 11일 오클랜드에서 사망했다.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였고 후에 화장하여 무덤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⁹⁴⁾

드류의 후임으로 알렉산더(Dr A. J. A. Alexander) 의사가 1902년 12월 군산지부로 부임하였으나 부친의 사망으로 장남이었던 그는 재산 처리 등 산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 병원은 결국 폐쇄되었다. 알렉산더의 사역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군산에서 알게 된 청년 오금선(吳兢善)⁹⁵⁾을 미국으로 데려가 의학을 공부하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오금선은 1899년 내한한 윌리엄 불(Rev William Ford Bull) 선교사의 여학 선생이었

92)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성장한 그는 1878년 햄턴-시드니대학에 입학하여 1882년 졸업했다. 1883년에는 필라델피아약학대학에 입학하여 3년간 약학을 공부했고, 1889-1891년에는 버지니아대학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다. 1893년 9월 11일 한국선교사로 임명된 그는 그달 27일 버지니아 댄빌(Danville)에서 루시 로(Lucy Exall Law, 1866-1932)와 결혼하고 1894년 1월 18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3월 12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미국남장로교가 파송한 첫 번째 의료선교사였다. 한국도착 2주 후에 레이놀즈와 6주 동안 호남지방 답사여행을 다녔고, 1896년 4월에는 군산으로 가 군산지부를 개척했다. 한국에서 과로로 건강을 잃게 되자 1901년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1926년 12월 67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사망했다, 부인은 1932년 12월 캘리포니아 캘시빌에서 사망했다.

93) *The Missionary* (Oct., 1897), 471.

94) 최은수 교수는 최근 남장로교 첫 의료선교사 드류의 흔적을 추적하는 등 드류 연구 결과를 인터넷 신문 '교회와 신앙'에 발표한 바 있고, 2024년 7월 11일 군산시의사회관에서 드류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교회와 신앙」, 2024. 7. 15.

95) 오금선은 1902년 24세 때 유학길에 올라 센트럴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하고 1904년 루이빌의과대학에 편입하여 3년간 수학하고 1907년 3월 졸업과 동시에 의사 자격을 얻었다. 그해 말 내한하여 군산의 선교병원에 부임했다. 그는 군산(1907-1911)에 이어 목포지부(1911-1913)를 거쳐 남장로교 선교부를 대표하여 세브란스(1913-1942)에서 봉사했다.

다. 오금선은 5년 후 의사가 되었고 1907년 군산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필, 박에스더에 이어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세 번째 한국인이 되었다. 후에 오금선은 목포 지부에서 일하고, 세브란스의전의 교수(1913-1933)가 그리고 학장(1934-1942)으로 봉사했다.

1904년에는 다니엘 의사(Thomas Henry Daniel, MD) 부부가 부임하면서 의료 사역이 재개되었고, 그의 지도력 하에서 진료소 수준을 넘어 18병상의 군산병원으로 발전했다. 1905년 12월에는 남장로교 최초의 간호사인 케슬러(Ethel Kestler)가 합류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이루어진 안정된 병원 체계를 만들었다. 1906년 3월에는 알렉산더 의사의 기부금으로 병원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때부터 군산 야소(예수)병원으로 불리게 된다. 영문으로는 프랜시스 브리지스 애킨슨 기념병원(Francis Bridges Atkinson Memorial Hospital)으로 불렸다. 이 병원이 미국남장로교 선교부가 세운 최초의 병원급 진료기관으로 진료실과 수술실, 그리고 18개 병상을 가진 2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었다.⁹⁶⁾ 군산에서 일한 선교사로는 다니엘(1904-1909), 오금선(1907-1910), 패터슨(Jacob B. Patterson, 1910-1924) 등이다.

1876년 출생한 피터슨은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우스터대학(Wooster College)⁹⁷⁾에서 수학한 이후 와싱턴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1907년 의사가 되었다. 1910년 3월 내한한 그는 이때부터 1911년 10월까지 오금선 의사와 동역했다.⁹⁸⁾

1914년에는 간호사 쉐핑(E. J. Shepping, 徐舒平)이 광주 선교부를 떠나 군산지부로 부임하였고, 간호사로 일하는 한편 1915년부터 간호반을 운영하였다. 쉐핑은 1917년 5월까지 일하고 서울 세브란스로 파견되었다. 이 병원은 1인 의사, 1인 간호사, 그리고 한국인 조수 15-30명(그 수는 시기적으로 다름)으로 운영되는 병원이었으나 1920년까지 환자가 증가하여, 1920년의 경우 진료 환자 15,424명, 입원환자 연인원은 1,799명이었다.⁹⁹⁾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일본인 환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군산이 미국 수출항이었기 때문에 일본인 거주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패터슨은 유능한 의료인으로 병원의 외형을 확장하였고, 한국식 온돌을 장려하였다고 한다. 그는 연구하는 의료인이었고, 의학 서적과 자료, 의료장비를 사비로 구입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의료기술에 활용했다.¹⁰⁰⁾ 그는 유능한 외과의사로 명성을 얻었고, 군산 야소병원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그가 재임하는 기간, 한 사람의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largest one-doctor hospital in all Korea)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¹⁰¹⁾ 패터슨 의사 이후, 1926년부터는 브랜드 의사(Louis Christian Brand, MD)가 병원장으로 일했고, 1927년에는 순천에서 일하던 그리어 간호사가 합류하여 병원이 정상화 되었다.

96) 이 병원은 알렌산더(A. J. A. Alexander) 의사가 기증한 현금으로 건축되었다. Brown, 70, 이만열, 206.

97) 이 학교는 미국북장로교 오하이오대회(Ohio synod)가 1866년 설립한 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설립시부터 기독교교육을 중시하여 국내외 선교단체나 선교공동체와 깊은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었고, 다수의 내한 선교사 혹은 내한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서 수학했다. 우스터대학은 호주선교사 왕길지(1921), 세브란스병원장이었던 에비슨 의사(1925), 세브란스의 외과 과장이었던 러들러(1927), 한국인 교회음악가 박태준(1952)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이상규, 『왕길지의 한국선교』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134-5.

98) 임희모,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여성, 의료선교사』 (동연, 2022), 152.

99) 이만열, 405.

100) 임희모, 57.

101) William Hollister, "History of Medical Work at Kunsan Station" *The Presbyterian Survey* (Oct., 1936), 591. 송현강, 58.

그러나 브랜드(L. C. Brand) 의사가 건강의 악화로 1929년 전주로, 그리고 1930년에는 광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그리어(Anna Lou Greer) 간호사가 병원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1912년에 내한한 그리어는 광주, 순천에서 사역하고 1927년 군산으로 왔는데,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1931년 10월에는 윌리엄 홀리스터 의사(William Hollister, MD) 의사가 목포에서 옮겨와 병원장으로 일했으나 건강의 악화로 1933년 7월 병원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약 10개월 후 다시 돌아왔으나 부인의 질병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못했다.¹⁰²⁾ 홀리스터 원장의 후임이 애양원 원장이었던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의 아들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었다. 그는 1939년 내한하여 군산선교부로 부임했다. 전반적으로 군산병원은 1920년대 이후 의료활동이 쇠퇴 하다가 1930년대 활성화되었으나 1937년에는 진료 인원이 감소했다.¹⁰³⁾ 1940년 11월 선교사들의 철수로 병원은 폐쇄되었고, 해방 후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다시 내한했지만 군산지부의 폐쇄 결정으로 이 병원은 재건되지 못했다.¹⁰⁴⁾

3) 목포지부

목포가 1897년 10월 1일부로 개항하게 되자 유진 벨 목사 부부는 그해 12월에 목포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선교지부 설치를 준비하였다. 사실은 이보다 앞서 1896년 2월에 레이 놀즈와 벨 목사는 목포에 선교부지를 매입하고 선교지부 설치를 준비한 바 있으나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개항이 연기되면서 매매계약까지 파기된 일이 있었다. 벨 목사는 1897년 12월 다시 선교부지를 매입하고 1898년 3월부터 선교사 주택 건축을 시작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의사이자 목사인 오웬(Clement C. Owen)이 목포에 부임함으로써 1898년 목포지부가 설치되었다. 1899년 1월에는 여 선교사 스트래퍼(Frederica Straeffer)가 목포지부에 합류하였다. 목포에 세워진 선교학교는 영흥학교로 발전했는데, 영문으로는 존 와킨스 아카데미(John Watkins Academy)¹⁰⁵⁾로 불렸다.

목포 양동영원

이곳에서의 의료사업은 1899년 목사이자 의사였던 오웬 의사로부터 시작되었다. 버지니아 출신인 클레멘트 오웬은 햄튼-시드니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그는 의학 훈련도 필요하다고 보아 버지니아대학에서 다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다. 그는 ‘축호 전도’와 ‘장막(tent) 전도’(길거리에 텐트를 설치하고 거리를 왕래하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방식)를 실시하는 한편 1899년 진료소를 개설하고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899년 9월에는 20여 명의 신자를 확보하였고, 1900년 3월에는 7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해 가을에는 목포지방 경찰업무의 수장이었던 김윤수도 세례를 받게 된다.¹⁰⁶⁾ 진료소에도 환자가 쇄도하였다.

이처럼 목포지부가 안정적으로 발전해가는데 벨 목사 부인 로티(Lottie Ungram Witherspoon, 1867-1901)은 1901년 4월 12일 심장 이상으로 두 자녀를 남겨두고 사망했다.

102) 송현강, 67.

103) 이만열, 686.

104) Brown, 175-6. 브라운, 244-5.

105) 존 와킨스는 학교 건물 신축 비용을 후원한 미국 스팔탄버그(Spartanburg)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름이었다.

106) 차종순, “미국남장로교의 호남지방 선교활동,” 『기독교사상연구』(고신대학교기독교사상연구소, 1998), 115.

오웬 의사는 1900년 북장로교 선교부의 여의사 조지아니 휘팅(Georgiana Whiting)과 결혼하고 함께 의료활동을 전개했으나 오웬 의사는 과로로 1902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태에서 남장로교 선교부는 광주지부에 집중하기 위해 목포지부를 잠정 폐쇄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오웬은 광주지부로 배속되었다.

그러다가 후속 선교사들이 계속 내한하게 되자 1907년 목포지부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의료 사역은 의료인력 부족, 그리고 의료진들의 단기 사역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07년 내한한 버드만 의사(Dr Ferdinand Birdman, MD)가 1908년 목포로 왔으나 몇 개월 후에 전주로 이동하였고 1909년에는 독일로 돌아갔다. 1909년에는 윌리 포사이드(Wiley Forsythe, MD)가 한국으로 돌아와 목포지부로 배속되었다. 이때 오공선 의사가 목포로 와 포사이드를 도왔다. 그러나 포사이드는 건강의 악화로 2년 후 1911년 미국으로 돌아갔고 1918년 사망했다.

1911년에는 매이너드 하딩 의사(Dr Maynard C. Harding)가 와서 짧은 기간 사역하였고, 1912년에는 로이 리딩햄(Dr Roy S. Leadingham) 의사가 와서 1919년까지 일했다. 1914년 한 병원 조수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진료소 내부가 전소되었으나 미조리 주 세인트 조셉교회의 찰스 프렌치(Charles W. French)가 남긴 기금으로 1916년 2층으로 된 석조병원을 건축했다.¹⁰⁷⁾ 그래서 목포의 선교병원은 이때부터 프렌치 기념병원(C. W. French Memorial Hospital)로 불리게 된다. 1921년에는 윌리엄 길머 의사(Dr William P. Gilmer)가 부임했는데, 1925년 부인이 사망하자 선교지를 떠났다. 그 후에는 두 의사 제임스 우즈 2세(Dr James B. Woods Jr)와 필립 프라이스(Dr Philip B. Price)가 짧은 기간 목포에서 일했다.

목포에서 일한 간호사로는 릴리 라스롭(Lillie Lathrop), 메리 베인(Mary Bain), 에스더 매튜스(Esther Matthews), 조지아니 휴슨(Georgiana Hewson) 등이었다.¹⁰⁸⁾ 1931년 이후에는 목포에 의료선교사는 없었고 한국인 의사가 봉사했는데, 1940년까지 유지되었다.

4) 광주지부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부는 1904년 2월 광주에도 선교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했고, 유진 벨 목사 부부와 오웬 의사 부부가 개척자로 파송되었다. 목포의 김윤수 집사가 광주 선교부 부지 매입과 선교관 건축 책임을 맡았다. 1904년 12월 15일 선교관 건축이 완성되었고, 두 선교사가정은 광주로 이동했고, 12월 25일 성탄 축하예배가 광주에서의 첫 예배였다. 이날 예배에는 유진 벨과 오웬 가족, 어학선생 변창연, 그리고 요리사 등 40명이 참석했는데, 이것이 광주에서의 첫 교회였다. 점차 교인수가 증가하여 1906년에는 시내 북문안에 예배당을 건축했다. 이렇게 출발한 교회가 광주 양림교회였다. 1910년에는 600명이 회집하는 대 교회로 성장했다. 유진 벨 목사는 자신의 주택에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907년에는 남자학교인 숭일학교가, 1908년에는 여학교인 수피아여학교로 발전했다.

의료활동과 광주 양림병원

광주에서의 의료활동은 1905년 11월 20일 조셉 놀란(Joseph Wynne Nolah, MD) 의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4년 내한한 그는 광주지부로 배속되었고, 작은 진료소를 개소했는데, 처음에는 제증원으로 불렸다. 개원 첫날 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첫 6주 동안 293명을 치료했다고 한다.¹⁰⁹⁾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에 지친 놀란은 1년 6개월간 사역하고 1907년 선교

107) 크레인, 95.

108) 크레인, 97.

사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평안도 지방의 광산 의사로 갔다. 그의 사임으로 잠시 진료소가 폐쇄되기도 했으나 1908년 윌슨(Robert Manton Wilson, 禹越淳) 의사에 의해 재개되었고, 1909

년에는 환자가 급증했다. 1910년 한해동안 9,900명을 진료하고 수술 건수는 175건에 달했다고 한다.¹¹⁰⁾ 1909년부터 병원 건립을 추진하여 1912년에는 현대식 병원을 신축했는데, 이 병원은 그래함(C. E. Graham) 부부가 자신의 딸 엘렌 라빈(Ella Lavine)을 기리기 위해 기부한 기금으로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엘라 라빈 그래함 기념병원(Ella Lavine Graham Memorial Hospital)로 불리게 된다. 이 병원이 현재의 광주기독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윌슨은 광주에서 장기간 사역했는데, 그가 사역한 1908-1928년 어간 병원은 크게 발전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얻었고, 의료선교의 필요성을 알리는 여러 논문과 편지를 썼다. 특히 12명의 한국인을 훈련시켜 의사로 양성했다. 윌슨 의사의 뒤를 이어 1930년부터 브랜드(L. C. Brand) 의사가 8년간 원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병원이 크게 발전했다.

1929년에는 남장로교 선교에서 처음으로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교육을 시작하였다. 뉴욕 콜롬비아대학병원 간호학교 출신인 마가렛 프리차드(변마지, Margatet F. Pritchard, RN, 1900-1988)은 1929년 내한하여 광주지부로 배속되었고, 1934년 광주병원 내에 간호학교를 설립했다. 이때부터 1940년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를 폐쇄하기까지 10명의 간호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모두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수여 받았다.¹¹¹⁾

1933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건물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의 신자들과 병원 직원,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모금으로 병원을 재건했다. 특히 1936년에는 탈메이지결핵병동(Talmage Tuberculosis Unit)을 신축하여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이후 결핵 환자들이 급증으로 다른 병동을 건축할 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에서의 의료사역은 이런 병원 운영 외에도 유아진료사업(1936), 간호사 교육 사업(1937)을 전개하였다. 1912년에는 간호사 쉐핑(E. J. Shepping, 徐舒平)이 광주지부에서 일하게 된다.¹¹²⁾ 그는 1912년 2월 부산으로 입국했는데, 광주 제중원에서 일하면서 한글을 공부했고 의료사역 외에도 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이 추가되었고, 후에 군산, 서울에서 일하면서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14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목포에서 열린 남장로교연례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쉐핑은 군산지부로 이동했다. 쉐핑은 군산에서도 의료활동과 복음사역을 겸했다. 그 후에 서울 세브란스에 파견 근무했지만 소속은 군산지부였다. 그의 사

109) 크레인, 100.

110) 이만열, 210.

111) Margatet F. Pritchard에 대해서는, 예수간호전문대학 동문회, 『변마지의 삶과 철학』(한글, 1993)을 보라.

112) 독일 비스바덴에서 미혼모의 딸로 출생한 쉐핑(1880-1934)은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21살에 간호사가 되었다. 해외선교의 이상을 가졌던 그는 1912년 3월 19일 목포로 입국하여 1934년 6월 26일 사망시까지 22년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광주, 군산, 서울에서 복음전도, 의료사역, 학교교육, 사회봉사 영역에서 활동했는데, 1920년부터 광주동부지역을 순회하면서 한국여성의 열악한 삶을 경험했다. 이후 그는 자신을 한국여성과 동일시하고 1923년부터 복음 전도, 기생교육, 구제, 여성경반 운영, 이일학교 교장, 금주 단연운동, 공창폐지운동 등을 전개했다(임희모, 82). 이런 활동으로 그는 '한국의 메리 슬레스'

(The Mary Slessor of Korea)라고 불렸다. 슬레스(1848-1915)는, 한국에 온 존 로스(John Ross)나 매킨타이어(John McIntyre)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출신으로 아프리카(캘러바, 현재의 나이지리아)에서 악습 철폐, 사회계몽,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였다. 그 또한 쉐핑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량과 자애, 헌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나환자들을 위한 사역

로버트 윌슨 박사가 광주에서 나환자 보호 및 치료 시설을 설립하게 된 것은 후일 한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역은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목포에서 일하던 포사이드(Willy Hamilton Forsythe, 보위럼)는 오웬 선교사가 급성 폐렴에 감염되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 목포에서 광주로 말을 타고 가던 중 봉선동 인근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 나병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환자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포사이드는 그 여자를 말에 태우고 광주로 왔다. 윌슨 의사와 함께 응급처치를 하고 광주 제중원에서 계속 치료해 주고자 했으나 다른 환자들의 항의로 병원 밖의 벽돌 가마터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여성을 간호해 주었으나 곧 사망했다. 그러나 광주의 선교사들은 포사이드의 행위에 감동을 받고 나병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중 선교사들의 기부금으로 윌슨 의사는 6-8명의 나환자들을 위한 작은 집을 봉선리에 건축하고, 이들을 수용했다. 이것이 1909년 광주에서 나병환자 보호시설(Asylum)인 나병원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 나병원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45명을 수용했으나 그 수는 점점 증가되었다. 후에 구라선교회(救癩宣教會, Mission to Lepers in India and the East)의 후원으로 1912년 1월 병원시설을 건축했고, 1920년대 초에는 600명이 환자들을 수용하게 된다.

한국에는 3개 처에 나병환자 보호시설(Asylum, Leprosaria)이 있었는데, 부산 상애원(1909-1940), 광주 애양원(1910-26, 1926년 이후 순천), 대구 애락원(1913-45)이 그것이다. 이 세 곳의 병원은 구라선교회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당시, 한국의 3개 처 나병원에 수용된 인구는 총 490명이었는데, 부산 153명, 광주 237명, 대구 100명 정도였다. 총독부가 운영하는 소록도에는 약 100명 정도 수용되어 있었으므로 전체 나환자의 3%만이 보호 혹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³⁾ 1921년 당시 기독교회가 운영하는 3기관에 수용된 환자는 550명 정도였다.¹¹⁴⁾

애양원에서는 윌슨 박사에 의해 전통적인 한센병 치료제인 대풍자유(cholomugra oil)에 에틸과 에스터를 화합하여 근육에 주사하는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약이었다.¹¹⁵⁾ 이 치료법이 부산의 상애원에도 소개되어 한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5% 감소하였다고 한다.¹¹⁶⁾

그런데 나환자 수가 많아지자 광주 시민들은 나환자 시설을 전남의 수도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윌슨은 순천에서 15마일 떨어진 여수 신평리에 부지를 마련하고 1926년 이전하였고, 환자 수는 더 증가 되어 1,200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확장되었다. 윌슨 가족은 1928년 순천으로 이동했다. 이곳의 수용인원은 부산이나 대구보다 많았다. 1911년 당시 45명에 불과했으나 60명(1914), 180(1915), 242(1918), 320(1920), 517(1922), 604명으로(1926) 늘어났고, 1935년에는 750명에 달했다.¹¹⁷⁾

나병원이 여수로 이전한 후 윌슨 의사는 이때부터는 애양원과 애양원 병원 사역에 집중하였

113) R. M. Wilson, "Hygiene and Sanitation in chosun," 86.

114) 이상규,

115) 김재현 편, 『소록도 100년의 이야기, 1916-2016』 (서울: KIATS, 2016), 35.

116) 헬렌 매켄지, 265. N. Mackenzie, "Report 1922," *Without the Camp* (Oct., 1922), 116.

117) 정병준, 358-9.

다. 그는 1912년에는 광주 나병원을 개원 한 이후 1940년 한국에서 추방되기 까지 나병환자 보호와 치료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의사였다. 해방 후 1946년 1월 다시 내한하여 구라사업에 전념하다가 1948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지만 그는 일생을 구라사업을 위해 바쳤던 위대한 의사였다. 나병원 이름은 몇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비더울프 나병원(Biederwolf Leper Colony) - 윌슨 나환자요양원(Wilson Leprosy Colony) - 윌슨나환자센터 및 재활원(Wilson Leprosy Center and Rehabilitation)으로 개칭되었다. 한국이름으로 여수애양재활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애양원이라고 불렀다.¹¹⁸⁾

1913년에는 광주 나병원 내에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지역 이름을 따라 ‘봉선리교회’라고 불렀다. 이 교회의 첫 담임목사는 텔메이지(John V. N. Talmage)였다. 그러다가 1926년 여수 신평리로 이전한 이후 교회는 ‘신평교회’로 개칭되었고, 선교사 웅거(Jaames Kelly Unger)가 교회를 이끌었다. 후에 이 교회는 병원 이름에 준하여 ‘애양원교회’로 불리게 된다. 그 이후 전주 출신으로 목포양동교회에서 목회했던 김응규 목사가 1928년 6월까지 목회했고, 손양원 전도사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1939년 7월 14일이였다.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교육인퇴를 결정하고 귀국길에 올랐고, 애양원 경영에 관여하던 선교부도 1940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선교사 철수를 결정했다. 1940년 9월에는 손양원 전도사가 구속되었고, 손양원 대신 애양원교회를 이끌던 텔메이지 선교사는 진주만 사건(1941. 12) 이후 광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일제는 1942년 4월 애양원 내의 모든 부동산을 몰수하였다.¹¹⁹⁾

5) 순천

순천지방에서의 첫 사역자는 오웬 의사였다. 그런 그가 질병으로 사임하게 되자 목포에서 사역하던 프레스톤 선교사가 광주 이동하여 전라남도 동남부 지역 곧 순천을 비롯하여 나주 보성, 장흥, 여수 등지를 관장했다. 프레스톤은 순천지방을 순회하면서 순천지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았고 1911년 안식년 기간 중 이를 본구 교회 선교부에 건의하였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의 더럼(Durham)에 거주하는 조지 왓츠(George Watts)는 순천지부의 13명의 선교사들의 봉급을 지불할 수 있는 거금을 기부했다. 그래서 순천지부는 충분한 인력과 자금을 가지고 개척될 수 있었다.¹²⁰⁾ 이보다 앞서 남장로교 한국선교부는 프레스톤과 로버트 코이트(Robert Thornwell Coit)에게 순천지부 개척을 위임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1910년 선교부지를 매입하고 선교관을 건축하고 1912년부터 상주하기 시작하여 1913년 4월에는 전도, 교육, 의료활동을 관장하는 순천선교부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였다.¹²¹⁾ 이곳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13년에는 매산(남)학교, 1914년에는 매산여학교가 설립되었다.

순천 안력산병원

순천에서의 의료사역은 1913년 가을 헨리 티먼스 의사(Henry Loyala Timmons, MD)와 간호사 안나 그리어(Miss Anna Lou Greer, RN)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원 후 첫 7개월 동안

118) 크레인, 104.

119) 손양원기념사업회 엮음, 『손양원의 목회와 신학』, 55.

120) 크레인,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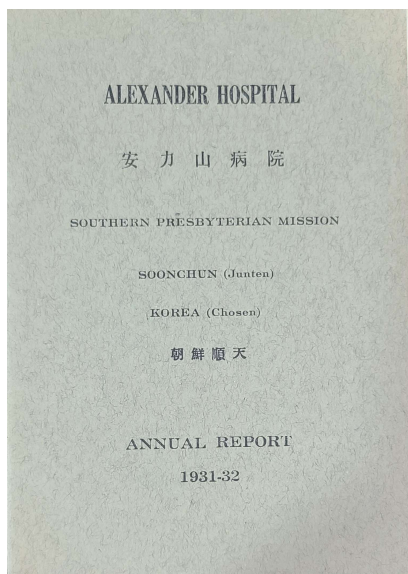
121) *Annual Report of Alexander Hospital, 1931-32. 2.*

은 작은 판자집에서 진료하였으나 3,814명을 진료하고 68건의 수술을 시행했다고 한다.

1915년에는 켄터키주 스프링스테이션의 알렉산더 의사(Dr A. J. A. Alexander)의 후원으로 1916년 3월 1일, 35 병상의 3층의 현대식 병원을 건축했다. 이 병원은 처음에는 순천병원으로 불렸으나 1916년부터는 병원 건축비를 지원해 준 이의 이름을 따라 안력산(安力山)병원(Alexander Hospital)으로 불리게 된다. 티먼스 원장은 과로로 1916년 귀국했고 건강을 회복한 1922년 다시 내한하여 순천에서 일했다. 그의 부재시에는 광주의 월슨 의사가 순천을 왕래하며 병원을 도왔다. 1921년 의사가 없을 당시에는 그리어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을 돌보았고 임신 면허증을 가진 한국인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했다.¹²²⁾

1917년 10월 내한한 재임스 로저(로제세, James McLean Rogers, MD) 의사는 이 병원에서 1940년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23년간 봉사했다. 유능한 외과 의사인 로저는 알력산병원을 남장로교 선교부의 가장 크고 안정된, 그리고 우수한 병원으로 육성했다. 그래서 서울의 세브란스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선교병원으로 발전했다.

로저 원장은 빈궁한 전남동부 지역과 순천의 사회 수준을 감안하여 진료비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병원경영방침을 정하고 실행하였다. 긴급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달려가 환자를 이송하여 치료하였다. 그래서 무료 시술 환자가 60%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환자들이 급증하였고, 1929년부터 자립하였고, 1933년에는 병원증축도 하게 된다.¹²³⁾



나환자요양원을 운영하며 감독하던 로버트 월슨 의사는 1928년 순천으로 이동한 이후 안력산 병원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다. 1934년에는 85개 병상을 갖춘 새로운 병동을 건축했다. 1936년 당시 안력산병원에는 로저스 원장과 한국인 의사 3명, 외국인 간호사 1명, 한국인 간호사 2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122) 이만열, 413.

123) 임희모, 13.

6) 종합과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남장로교 한국선교부의 의료활동을 선교지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미국남장로교 선교부의 선교지부별 선교병원

선교지부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
지부설치	1896	1896	1898	1904	1913
의료기관 설립	1897	1896	1899	1905	1913
설립자	W. Harrison Mattie Inglood 하위럼, 잉골드	A. D. Drew 유대모	Clement Owen 오기원	J. W. Nolan 노라노	H.L. Timmons A. L. Greer 김로라, 기안라
의료 기관명	전주야소병원	군산야소병원, 군산구암 야소병원	목포양동병원, 프렌치 기념병원	제중원 광주양림병원 광주기독병원	안력산 병원
영문 이름	W. R. McCowen Memorial Hospital	F. B. Atkinson Memorial Hospital	C. W. French Memorial Hospital	E. L. Graham Memorial Hospital	Alexander (Memorial) Hospital
주요 의료진	M. Ingold, F.H. Birdman, T. H. Daniel, M. Robertson, H Timmons, L. K. Boggs	A. D. Drew, T. H. Daniel, J. B. Patterson, E. J. Shepping L. C. Brand A. L. Greer	C .C. Owen, R. S. Leadingham, W. P. Gilmer	J. W. Nolanh, R. Wilson, L. C. Brand, E. J. Shepping	H. L. Timmoms, Anna Greer, J. L. Rogers

남장로교는 이상의 5개 선교지부 외에도 세브란스에 의료진을 파송하여 연합사업에 협력하였고, 5개 선교부의 의료활동은 환자 진료와 치료 병원 사역, 나환자 보호와 시료 외에도 의사와 간호사 양성사업, 위생 및 환경개선사업에도 관여하였다. 또 선교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곧 시약소나 진료소 혹은 병원은 시료와 치료 뿐만 아니라 서양 의술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은 서양 의술을 접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910년 이전에는 남장로교가 전라도에서 서양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²⁴⁾ 일본인의 의료기관이 없었고, 소수의 정부 의료시설(병원)만 있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부의 휘하에 있던 오궁선 박사는 1915년 이전 전라도 지역에서 현대의료 교육을 받은 유일한 한국인 의사였다. 한국인 의사로는 한의사들뿐이었다.

의료선교사들의 의료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의료선교 관련자들과 관련 기관의 중요한 논쟁점이었다. 그것이 복음선교를 위한 보조수단인가? 아니면 의료행위 그 자체가 선교활동인

124) Brown, 68, 조지 톰슨 브라운, 103.

가? 의료 사업은 복음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가하면, 의료 선교 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¹²⁵⁾ 전자를 도구주의적 의료선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장로교의 윌슨(R. Wolson)은 이런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의료사업이 일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도록(a means of bringing Christi to those who know Him not) 노력하고 있다”¹²⁶⁾고. 반면에 의료활동은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북장로교의 샤록스(Ella J. Sharrocks, 謝恩羅)와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 鰲離楸)였다. 이런 입장을 복음 실천적 의료선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제타 홀(R. Hall), 프로렌스 머리(Florence J. Murry) 등도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²⁷⁾

그러나 남장로교는 의료활동을 복음전도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했다. 즉 남장로교는 1897년 10월에 채택한 선교정책에서,

“선교사의 생애와 봉사의 큰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방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이 큰 목적의 보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는 복음을 더 넓게 더 효과적으로 선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교사의 사역의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¹²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수병원의 설립자였던 잉골드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이 정신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전도사업에도 힘을 썼고, ‘유아요리문답’이라는 책을 간행하기도 했다.

3. 종합과 평가

이상에서 약술한 바처럼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전라남북도에 5개 선교지부를 설치하고 각 선교부 별로 의료활동을 전개했는데, 다른 장, 감 선교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 선교지부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했다. 병원 설립의 경우, 미국북장로교가 1885년 4월 서울에 광혜원(제중원)을 설립한 이후 감리교의 시병원(施病院, 1885. 9), 북장로교의 보구녀관(普救女館, 1887)이 설립되었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러 선교병원이 설립되었다. 즉 전킨 기념병원(부산, 1891), 래드병원(평양, 1893), 기흥병원(평양, 1897), 구세병원(원산, 1896), 동산병원(대구, 1897), 미동병원(선천, 1901), 던칸기념병원(청주, 1903), 아이베이병원(개성, 1907), 제혜병원(함흥, 1908), 게레지병원(강계, 1909), 배돈병원(진주, 1913)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1913년까지 남장로교 선교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3개의 진료소, 30개의 선교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다(<표2> 참고).¹²⁹⁾ 대부분의 병원은 1940년까지 유지되었고, 대동아전쟁 이후 다수 병원은 폐쇄되었고 일부는 한국인에게 이양되거나 양도되었다.

125) Ellasue Wagner, “The Why and Wherefore of Medical Mission,” *Korea Mission Field* XXVI/ 5 (May, 1930), 89.

126) Robert Wilson, “Medical Report of Kwangju Station,” KMF, VIII/ 10(Oct., 1912), 291.

127) 송용권, ‘한국 개신교 의료선교의 갈등연구, 1884-1940년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24), 114-5.

128) 설대위, 34-5.

129)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1914에 근거함.

<표2> 1913년 당시의 선교병원 현황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안식교
선교부	미국북 장로교	미국남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미국북 감리회	미국남 감리회	여선 교회		
병원 (진료소)	강계 선천 평양 제령 서울 청주 안동 대구 부산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회령) 성진 함흥 (원산)	진주 (통영)	영변 평양 해주 원주 공주	원산 송도 춘천	평양 서울	제물포 인천	순안
계	9	5	2(4)	1(1)	5	3	2	2	1

* 괄호() 표는 진료소만 있는 곳임

주한 각 선교부는 의료선교를 중시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학교육을 시작하게 되자, 선교부 간의 상호협력과 연합이 요구되어 1911년에는 한국의료선교사협의회(The Korea Medical Missionary Society)가 조직되었고,¹³⁰⁾ 의료선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의료선교사협의회에 의하면, 1938년 당시 주한 의료선교사 수는 317명이었는데, 선교부별로 보면, 미국북장로교 84명, 남장로교 44명, 호주장로교 11명, 캐나다장로(연합)교회 22명, 북감리회 59명, 남감리회 32명, 성공회 3명, 안식교 10명, 독립선교사 21명이었다.

산정 범위가 다르지만 약간 다른 통계도 있다. 알렌 이후 해방 이전까지 활동했던 의료선교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선교부별 내한 의료선교사 현황¹³¹⁾

선교부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약사	비고	계
미북장로교	36	3	31	1		71
미남장로교	21	1	17			39
미북감리회	27	1	22			50
미남감리회	16		16			32
캐나다장로	7		13			20
호주장로교	4(5)*		7			11(12)
영국성공회	13		15	4		32
안식교	6		3			9
구세군			1			1
계	130(131)	5	124	5		264(265)

* 목사 선교사로 내한하여 부산 나환자보호소(상애원)에서 봉사하던 중 의사시험에 합격한 노블 매켄지(매견시)를 포함할 경우 호주장로교의 의사 선교사는 5명이 된다.

130) *Korea Mission Field*, XXVI/ 5 (May, 1930), 104.

131) 이상규, 『다시 쓴 한국교회사』 (개혁주의출판사, 2016), 105.

이상의 자료를 한국에서의 의료선교 활동에서 남장로교 선교부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남장로교는 5개 선교지부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선교 활동이 남긴 공헌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 호남지방에서 사역한 남장로교회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선교 활동은, 첫째, 기독교적 자애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을 시료하여 재활, 재생의 길을 가도록 도움을 주었고, 둘째, 서양 의학의 전파를 통해 한국의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셋째, 의학교육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양성에 기여하였고, 넷째, 예방, 시약, 치료, 공중위생 및 보건증진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보건 의식의 함양 및 의료환경을 개선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였고, 한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음전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록.

남장로교 선교부의 의료선교사들(의사 21, 간호사 17, 치과의사 1명)

* 내한연도, 영문명, 한국명, 사역종료년, 사망년, 기타 사항(괄호로 표시함) 순임

- 1893 Drew, A. Damer, MD. 유대모, 1904
1895 Ingold, Miss Mattie B. MD. 최부인, 1928, 1962 (m, Rev Lewis B. Tate, 1905)
1897 Owen, Rev Clement C. MD. 오기원, 1909. (목사이기도 함, 1905년 이후 전도사 역)
*1900 Owen, Mrs C. C. (nee Georgiana Wwhiting, MD of PCUSA, M in 1900), 1923, 1952
1902 Alexander, A. J. A. MD. 1903 (2개월 근무)
1904 Daniel, T. Henry, MD. 단의사, 1917
1904 Forsythe, Wiley H. MD. 보의사, 1912, 1918
1904 Nolan, J. W. MD. 놀란, 1908
1905 Kestler, Miss E. Esther, RN. 게슬라, 1946, 1953
1905 Wilson, R. M. MD. 우월손, 1948, (1963 목사이기도 함)
1907 Birdman, F. H. MD, 1909
1907 Cordell Miss Emily, RN. 1930, 1931
1907 McCallie, E. C. RN. 1926
1908 Edmunds, M. J. RN. 1930, 1945 (m W. B. Harrison)
1909 Patterson, J. B. MD. 손배희, 1926, 1933
1910 Pitts, Miss L. M. RN. 1911
1911 Harding, M. C, MD. 1913
1911 Lathrop Miss L. O. RN. 라두리, 1931
1912 Greer, Miss Anna Lou RN. 기안라. 1935 (m. George W. Walker, 1932)
1912 Leadingham, R. S. MD. 한삼열, 1923
1912 Shepping, Miss E. J. RN. 서서평, 1934 (1918-20 서울 세브란스)
1912 Timmons, H. L. MD. 김로라, 1919(1922년 재임명), 1975
1915 Matthews, Miss E. B. RN. 마에스더, 1930, 1960
1915 Robertson, M. O. MD. 라빈손, 1919(1920 재임명), 1952
1917 Rogers, J. M. MD. 노재수, 1947
1920 Hewson, G. F. RN. 허우선, 1940
1921 Bain, Miss M. R. RN. 배마리아, 1927
1921 Grey, Miss Annie Isabell, RN. 엄엘라, 1926 (m R. L. Crook, 1927)
1922 Gilmer, W. P. MD. 길마, 1927
1922 Levie, J. K. DDS. 여계만, 1959, 1977
1924 Brand, L. C. MD. 부란도, 1938
1924. Boggs, L. K. MD. 박수로, 1949, 1953
1927 Hollister, W. MD. 하리시, 1936
1927 Kerr, L. V. RN. 1959 (m B. A. Cumming, 1959)
1929 Pritchard, Miss M. F. RN. 변마지, 1969
1929 Thumm, Miss T. B. RN. 원마태, 1931
1937 Woods, Miss E. B. RN. 임혜인, 1940 (m Rev O. DeCamo, 1940)
1938 Preston, J. F. Jr., MD. 1947
1939 Wilson, J. S. MD. 1945
1939 Newton, E. M. RN. 1945 (m J. S. Wilson)